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5 1982년 7월 2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ly 27, 1982

JUL 2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일본인들반성안해

국정교과서가 한·일역사 왜곡

일본각료는 오히려 옹호 발언

(서울26일=연합)일본의 새 고등학교 교과서가 일본의 한국침략을 왜곡했으나 일본 각료들은 오히려 한국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주장, 한국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로 들끓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 국토청의 마쓰노·유끼야스장관은 한국의 교과서가 한·일합방을 일본의 침략행위라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었다. 일본교과서는 한일합방이 일본의 침략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2차대전 때의 한국인 징병은 자원입대에 의한 것이고, 3·1운동은 폭동이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26일 외무부소식통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관망한다고 말했다.

고위 외무부관리는 이 문제는 현재 협상단계에 있는 일본의 $40억 대한국경제차관문제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신임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들을 소집, 대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일의원연맹의 한국측위원장 이재형의원은 일본측 위원장 야스이·켄씨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여당인 민정당도 26일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역사왜곡을 시정토록 촉구하고, 망썽 발언한 일본각료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태 민정당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일본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조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한국의 주요일간지들은 26일 사설에서 이 사건을 일제히 다루고 분노와 항의를 표시했다. 한 사설은 "일본이 과거의 식민주의적 잔재를 새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며, 또 이를 일본 각료가 반성은 커녕 옹호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나간 악몽이 다시 상기된다. 이는 일본정부의 군국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폭사건을 자초한 일본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이다"고 비난했다.

오랫만에 옳은 소리

북한 로동신문 일본비난

(서울26일=연합)북한 공산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새로 발간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1919년 3·1독립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일본의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25일자 로동신문은 또 일본이 한국인 강제징병을 자원입대로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 틀린 역사를 주입시켜 새로운 군국주의적 이념을 불어넣으려고 획책한다고 비난했다.

"일본인 출입금지"

식당주인 분노터져

(서울26일=연합)「일본인 출입금지」란 패말이 23일 서울 중심가의 식당에 나붙었다.

이같은 반일감정의 표출은 새로 발간될 일본고등학교 교과서가 한·일관계를 잘못 명기했으나 일본 각료들이 오히려 이를 옹호한데서 비롯됐다. 종로구 효제동의 식당주인 정문수(33)씨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인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항일운동자였다는 정씨는 일본인 출입금지란 패말이 일본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는 군국주의의 물결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골동품상과 한의원 거리에 있는 정씨의 식당은 1주에 10여명씩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구독은
533 2361

「프」외상 방한계기

북한 승인 지연 촉구

(서울24일=연합)한국의 영자일간지 코리아·헤랄드는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하려는 조처는 서울과의 우호관계를 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24일자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 사설은 오는 8월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외무장관 클로드·쉐송씨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프랑스는 지금까지의 「2개의 한국 승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최근 쉐송외무상이 프랑스의회에서 "평양측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태세가 돼있으며, 이는 지난 총선(프랑스)에서 좌파연립정부가 수립될 당시의 공약"이라고 발언했음을 상기시켰다.

헤랄드지는 쉐송외무상이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실정을 보다 잘 이해해서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하려는 계획을 지연시키도록 촉구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24일밤 익시비션·스태디움에서 있은 제1백회 메트로·토론토 시경찰축제에서 미스·토론토로 선발된 미녀는 24살의 로레타·설리양(가운데). 염×에글린턴 쇼핑센터에서 광고·판매촉진 책임자로 있는 설리반양은 결선에서 10명의 후보를 물리쳤다. 왼쪽은 미스·토론토 2위 앤·마리·브리튼양과 3위인 데비·해콕양(오른쪽).

6% 통제 강력추진

트루도, 정부지원 기업에 으름짱

(오타와)캐나다 기업및 국민은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물가및 임금 6% 통제책에 협조해야한다고 23일 트루도수상이 말했다.

경제난관을 타개해 나갈 묘책에 부심해온 트루도정부는 각 기업이 물가및 임금인상폭을 연 6%로 제한하면 현재 연 11.2%의 인플레를 내년에 연5%이내로 잡을 수 있다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자진통제를 호소해온 정부는 이날 민간기업을 포함,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모두 의무적으로 6% 통제에 동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제의무화』조처는 작년도에 직접·간접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1,800개이상의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협조해야할 캐나다노동연맹(CLC: Canadian Labor Congress)은 이를 적극 반대, 정부와 일전을 불사할 태세이며 벨·캐나다, 에어·캐나다등 대기업체들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면 우리는 곧 파산한다"고 아우성, 귀추가 주목된다.

조치훈「홍인보」방어

일본 바둑계 4관왕

(도쿄 송효빈 특파원)한국의 아들로 일본 바둑계에 군림하고 있는 조치훈은 "홍인보(본인방)"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숙적 고바야시 9단과 지난 21, 22 양일간 일본 야마가다껜 무라야마시에서 벌어진 올해 제37기 홍인보(매일신문 주최) 도전기 제6국에서 백을 쥔 조명인·홍인보등 4관왕은 152수만에 도전자 고바야시'를 불계승으로 눌러 4승2패로 첫번째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이날 제6국은 조9단이 5국까지 3승2패로 앞선데서 마지막 승부국이었고, 고바야시로서는 막판대국으로 두 사람 다 전력을 기울이게 했다.

포석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얽히는 투지를 보였으며, 시간을 물쓰듯하는 장고전을 펴서 대국이 끝난 후 남은 시간은 조9단이 1분, 도전자 고바야시 9단은 50분이었다.

이번 도전기 결과는 일본 바둑계에 「조치훈시대」를 재확인한 셈이며, 특히 평소 맞수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고바야시 9단을 꺾었다는 사실이 크게 돋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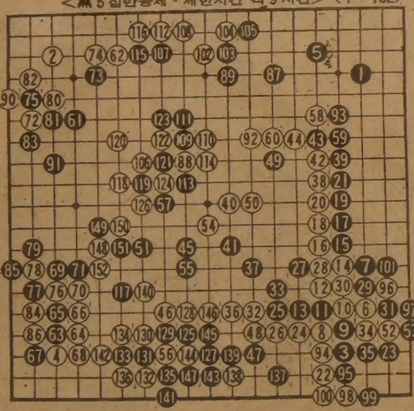
이로써 조9단은 명인·홍인보·10단위·학성의 4개 타이틀을 보유하게 된다.

홍인보 자리를 거뜬히 지켜낸 조치훈은 "벅찬 상대를 이겨 기쁘다"면서 이제부터는 현재 진행중인 「기성」위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7기 「기성」전 도전자가 된 조9단은 그간의 타이틀 방어전이 부담이 돼 지난 14일 열렸던 제1국에서 기성 오다께 9단에게 불계패했었다.

제2국은 오는 8월3일 열릴 예정이다.

◇제37기 本因坊戰 7번승부 제6국
白 本因坊 趙治勳 九段 (4승2패)
黑 도전자 小林光一 九段 (2승4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1~152)



$40억차관 또 난항

상환방법등에 견해차

(서울24일=연합)한국정부가 82년부터 86년까지의 제5차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일본정부에 요청한 경제차관에 관한 한·일간의 협상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애초에 $60억 차관을 요청한 한국은 $40억선으로 양보, 일본과 합의했으나 차관형태및 상환방법상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 외무부 소식통이 전했다.

일본측은 $40억중 $15억은 개발차관(ODA)으로, 나머지 $25억은 일본수출입은행 융자로서 연리 6.1%로 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한국측은 $23억은 ODA차관으로, $17억은 상업차관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한달간 해외실습

공대생 65명

(서울24일=연합)65명의 한국 공과대학생들이 약 한달간 해외현장실습차 24일 출국했다.

리비아, 이라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및 말레이지아등지의 한국건설기술회사에서 현장 실습하게 될 이들 학생들은 한달간 여비외에 미화 $3백의 임금을 받게 된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낙흠화상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 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알립니다

저희 상점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급한 가정사정에 의해서 오는 8월1일(일)부터 22일(일)까지 3주간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불편을 끼치게 되어 지면으로 사과 드립니다.

오는 8월23일(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영업을 계속 하오니 이후 더욱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아안경상사 대표 구진모 올림

635 Bloor St. W. ☎ : 531-2236

도매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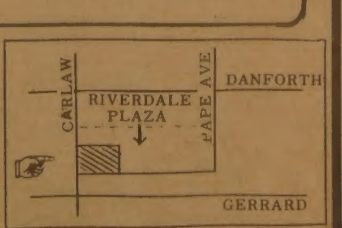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미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 품질·가격·신용보장.
—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주문시간
오전 9시~오후10시까지(월~토)
오전11시~오후 6시(일)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인권 위해 노력했다

전 주한미대사, 광주사태 역할 밝혀

지난 78년부터 8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암 글라이스틴씨는 광주사태 당시 존·위컴대장(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전사령부 병력을 광주로 이동하도록 허용한 바 없으며, 더구나 특전사는 한번도 위컴의 작전지휘권아래 있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브루스·커밍스 워싱턴대학교수가 지난 6일 「서울의 심각한 문제(The Devil to Pay in Seoul)」제하로 뉴욕타임즈지에 기고한 글을 반박하는 투고를 통해 22일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위컴대장이 「특전사병력에 의해 광주에서 난폭한 행동이 있은 후 어지러워진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군으로 서울에 나와있던 잘 훈련된 보병 제20사단을 광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교회지도자들과 협력하도록 한국지도자들을 고무했으며, 광주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최근 저서에서 6·25가 남한의 북침으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 커밍스는 지난 6일의 기고에서 미국의 지난3대 행정부의 대한정책, 존 위컴대장, 리차드 워커대사등을 신랄히 비난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한국의 장래가 매우 비관적이라고 주장했었다.

글라이스틴은 커밍스교수가 「한미관계가 지난 3명의 미국대통령이 지난 10여년간 한국에서의 민주적 반체제 인사들이 억압받도록 내버려두거나 억압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커터대통령이 1979년 박대통령과 만날때 미국의 인권의 기준을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커밍스의 주장은 「더할 나위없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카터대통령이 박대통령에게 정치범의 석방을 너무나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당시 한미정상회담이 결렬될 뻔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뉴욕타임즈지는 이날 독자란(Letters)에서 글라이스틴의 반박문외에도 존·홀드리지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및 조지타운대학 에드워드 루트와크교수의 반박문을 나란히 실었다.

홀드리지 차관보는 커밍스의 글에 「최소한 두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의 콘트롤데이타 컴퍼니 여공들에 의한 미국인 중역감금사건에 관해, 「미국대사관이 한국경찰로 하여금 여공들을 체포토록 연락했다」는 커밍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며, 「경찰이 왔지만 폭력없이 해산됐으며 몇몇 노조 지도자도 잠시 심문을 받았을 뿐 미국의 강요(behest)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홀드리지차관보는 이어 리차드 워커대사가 한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철없는 망나니들(Spoiled brats)」이라고 불렀다는 「순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커밍스교수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홀드리지는, 지난2월 한 인터뷰에서 워커대사가 학생데모대가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60년대초의 정치적 위기와 80년도의 학생데모를 비교하면서 80년도엔 노동자들이 반정부운동의 선두에 나서질 않았으며 어떤 노동자들은 데모대를 보고 「철없는 망나니들」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로소주 시판

7월말부터 LA서

(나성지사)고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진로소주가 북 미시장에서 정식으로 선을 보이게 된다.

교포주류수입수출 도매업체인 『U.S. Liquor Import & Wholesale 대표 우길선)은 한국산주류 수입허가를 미국정부로부터 받음으로써 진로소주가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된것. 이에따라 주식회사 『진로』는 설성수부사장을 LA로 파견, 1차적으로 14만5천병을 들여오기로 했다.

US리커수입도매상의 우길선씨는 『7월말부터 시장에서 교포들이 진로소주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수입될 진로는 포켓사이즈등 3가지 종류』라고 말했다.

또한 우씨는 『진로소주를 멕시코인과 미국인들에게 시음한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전망이 무척 밝다』고.

1924년 부산에서 낙동강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진로소주는 1954년6월 서광주조로 명칭을 바꾼후 다시 『진로』로 개칭했는데 한국시장점유율은 50%에 이르고 있다.

한편 US리커수입도매상은 현재 북미전역의 리커상을 비롯 교포업소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

▲10512 Hoyt Park Place
El Monte, Ca 91733
▲(213)444-2505

휘문고 하키선수들 훈련돌입

친선경기 4회, "배우러 왔다"

휘문고 하키팀이 본고장 하키를 배우러 토론토에 도착했다.

캐나다 한인아이스하키협회(회장 이종원) 초청으로 24일 김태식교장 인솔아래 토론토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선수12명, 임원5명)은 오는 8월3일까지 토론토에 머물면서 교포 펭귄팀 및 캐네디안팀들과 4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

서울의 유일한 실내링크인 동대문스케이트장이 지난 4월 문을 닫는 바람에 4개월간 링크에 서보지 못했던 이들은 도착 다음날인 25일 웨스트웃·아리나(체육관)서 훈련에 돌입했으나 다리에 쥐가 나 첫날부터 비지땀을 흘려야했다.

이들을 첫 지도한 캐네디안 코취 폴·토코보가씨는 "누구든지 배우려는 의욕만 있으면 된다. 멀리 한국서 온 어린 선수들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하키의 산증인으로 한국대표팀 코취를 수차례 역임, 80년 미국 프레식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휘문고 임병철 코취는 "하나라도 배우고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한국하키도 세계최하위는 모면해야겠다"면서 "캐나다에서 한국선수들을 정기적으로 훈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숙소는 헤리테지인(Heritage Inn)이다.

한편 캐나다체육회(회장 이병권)는 25일밤 거구장에서 휘문고환영파티를 열어주었다.

캐나다휘문고동창회는 오는 31일 환영의 밤을 열며 8월2일에는 선수들과 나이아가라를 관광한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제일장로교회 장목사 이임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장희선목사는 지난6월말 개인사정으로 동교회를 떠났다. 제일교회 목사는 현재 공석중.

모기지란 무엇인가?

경제생활과 우리 — 부동산 상식편①

황용현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황용현 씨

산업자금중 주택이 절대

모기지상식 필요불가결

편집자주: 「경제생활과 우리」 제3편 법률상식편은 강찬영변호사가 기고했으나 필자사정상 당분간 중단한다. 이에 관련된 부동산상식은 황용현씨가 10여회에 걸쳐 연재한다. 황씨는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의 사장으로 경영학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캐나다의 주택중 절반이상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지은 집들이다. 즉 캐나다는 서방국중 새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렇게 새집을 많이 짓노라면 막대한 모기지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캐나다의 산업자금중 모기지에 관련된 자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해마다 상승되는 건축비와 주택가격으로 모기지 수요액은 점점 증가일로에 있다. 과거 15년간 캐나다의 총 모기지 대여액이 12배나 증액됐으며, 특히 1970~74 4년간에 400%증가했다.

모기지에 대한 상식은 캐나다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누구에게나 요구된다.

◉모기지(Mortgage)의 정의.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Mortgagor)가 채권자(Mortgagee)에게 채무자의 부동산(Real Estate)을 담보(Security)로 하여 돈을 빌린후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갚겠다고 법적으로 계약(Legal Contract)한 것을 모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고 등기말소를 하면 법적계약이 끝나고, 그 부동산의 담보는 제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해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채무자가 약속된 액수(월 또는 분기별)를 어김없이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담보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증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이름, 액수, 이자율, 지불방법, 부동산 내용, 계약위반시 어떻게 하는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모기지 등기(Registration)

모든 모기지는 온타리오주법에 의해등기(Registration)하게 되어 있다. 채권자는 모기지 등기하기전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잡혀있나 없나를 등기소(Registry Office)에 가서 조사(Search)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거 40년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역사(History)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새집은 간단하지만 오래된 집은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횟수가 많어 모기지 담보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전 담보를 잡을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꼭 알아내야 한다. 통상 이런 경우 조사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200불정도 차지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기지 소개인(Broker)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기지는 언제 등기되었나가 가장 중요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등기된 순서에 따라 1차모기지(1st Mortgage), 2차모기지(Second Mortgage)라고 부르며, 액수에 따른것이 아니다. 1차모기지가 2차모기지나 3차모기지보다 훨씬 적은 액수도 될 수 있다.

동산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의무가 있고, 주택세금도 밀리지 않고 잘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담보액수만큼의 보험도 들어 화재나 천재지변시에도 채권자의 돈을 보호 해야 한다.

모기지는 약정증서(Deed 또는 Indenture)에 의해서 법

휴가와 서양

〈여동원 수필선〉

여 동 원(문협회원)

◆여동원 씨

휴가시즌이다.

떠난다. 살던 곳을 잠시 비우고 떠나본다. 집을 비우고 도시를 비운다. 파리가 비고, 런던이 빈다. 그대신 뜨내기가 그 빈 도시를 메운다. 학생들의 긴 방학을 여기에 맞추고, 직장인의 휴가계획을 여기에 맞추고, 공장이 문을 닫고 모두 모두 떠난다.

서양인들이 고안해낸 것 중 가장 멋진 행사가 이 여름휴가라고 나는 늘 부럽게 생각하고 있다.

휴가!

이곳 서양인들에게 사치도, 맘을 어렵게 먹은 벼르고 벼른 계획도 아니며, 일생 일대의 사건도 아닌 단지 생활의 리듬이다. 낮이 가면 밤이 오듯, 밥을 먹으니 변소 가듯 삶의 신진대사다.

우리의 옛사람들도 떠나는 버릇이 있긴 했었다. 죽장망태 단표자로 금강산 구경 가세!

만경창파 배 띄워라 지국총 어사와!

이런 유람의 풍류는 있었다. 그러나 곤 가족이 즐기는 휴가(바캉스)는 없었다.

철저한 개인주의인 이곳에서 유일의 "우리"가 통하는 행사가 이 이름휴가다. 혼자 떠나는 것을 여행, 유람이라 한다면 가족단위로 떠나는 것은 휴가(바캉스)다. 휴가(바캉스)란 뜻에는 가족단위를 생각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

이네들은 여름을 사랑한다.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미친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워! 덥다"하지만 이네들은 "오늘 참 날씨 좋다''고 탄성을 올린다. 그래서 이네들은 겨울도 여름도 플로리다행이다.

우리는 피서(더위를 피한다) 간다고 하지만 이네들은 여름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즐기기 위해 더위를 맞으러 간다. 우리가 서늘한 그늘을 찾을 때 이네들은 태양을 온 몸으로 받아 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처럼 핼쑥해 지고 있을 때 이네들은 야성처럼 건장해 지고 있었다.

그늘을 찾은 우리와 태양을 찾은 저들- 그것은 모든 문화 깊숙이 영양을 주며, 역사를 만들었지 않나 싶다.

다시 되돌아가 휴가를 이야기하자.

우리는 아무래도 이 휴가에 익숙해 있지 못하다. 휴가란 낱말도 골수 깊이 저리고 밴 김치맛같은 그런 친근하고 버릇들인 낱말은 아무래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휴가"란 우리말 대신 "바캉스"란 단어가 유행이란다.

우리말 천시라고 나무라지도 못하는 이유는 이 말은 본고장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해야만 제 맛을 풍길 수 있는, 아직은 우리에게 설익은 행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휴가"라는 낱말에 친숙해진 것도 겨우 군대에서였고, "휴양"이란 또다른 우리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폐병3기 정도의 환자가 병치료를 목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정도다.

벌써 내가 한국을 떠나온지 15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사정이 많이 변해있을 것이나 아직은 서양인들처럼 온 국민이 부담없이 즐기는 생활화와는 먼 거리에 있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곳 우리의 사정으로 짐작이 간다.

5년을 휴가의 본고장에서 생활한 우리(나)는 그래 어떤가? 내 자신 휴가다운 휴가 한번 가본 일이 있는가?

"꽁생원네니깐 그렇지."

장담하고 내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일부를 빼고는 많은 분들이 "하긴 나도 그래"하실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는 행사가 유일의 가족단위 떠나는 행사다.

"이 짓을 지루한 줄 모르고 반복하다 보니 벌써 15년이구나!" 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물론 아이들 데리고 한국도 한번 다녀오고, 플로리다도 갔다 오고, 캠핑도 해보고 해서 이네들의 휴가선용을 흉내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흉내내고 있다는 표현 정도의 맛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내 독단이 너무 심한걸까?

우리는 서양에 살고 있다. 그것도 일이년이 아니라, 뼈를 묻을 각오로 이민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네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가. 생활 구석구석 일거수 일투족을 이네들처럼 해 보려고 할수록 그것은 어색한 흉내일 뿐, 동화가 어렵다.

가끔은 물가에도 놀러가고, 산에도 가보고, 낯선 고장을 찾아 차를 몰아보지만 물위 기름처럼 그 낯선 곳에 맘을 뺏기지 못하는 끌끌한 심정임을 어찌하리오!

김치맛, 오장육부 피부구석구석에서 음미하고 있는 듯한 부듯한 만족감, 그런 맛이 아니라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도저히 목청너머로 넘어 갈 생각을 않고 있는 샌드위치 맛- 그런 물기 없는 맛임을 어쩌랴.

그러나 내가 서양의 문물중에서 존경해 마지 않는 이 여름휴가의 버릇만은 꼭, 그리고 빨리 흡수, 내것으로 만들고 싶다. 비록 흉내일망정 이 휴가의 맛만은 즐겨 음미해 보고 싶은 탐나는 풍습이라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런대로 일년에 한번쯤은 집을 비우고, 맘을 비우고, 홀가분한 맘 갖고 낯선 곳을 찾아 가족들과 어울려 보는 것을 배우고 싶다.

내년에는 나도 이네들처럼 신나고 멋있는 휴가 한번 가리다! 그 내년이 15번, 금년도 또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년이란 단어를 궁색스럽게 이용하며, 바쁘다는 주머니사정을 핑게로 더운여름의 긴 방랑을 방구석에서 맴돌게 하고, 하늘 위로 날아가는 저 거대한 은색 보잉기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죄스럽게 훔쳐보는 가장의 맘!

그 누가 이해해 줄까?

7월의 뒷 뜰에서

◆2년만에 하키의나라 캐나다를 다시 찾아온 휘문고선수단. 25일 연습이 끝난후 웨스트우드·아레나 링크에서 캐네디안 코취 폴·토코보가씨와 휘문고 코취 임병철, 장영준감독을 둘러싼 휘문고 선수들.

빠진이 우유에 담그면

재생가능성 가장높아

사고로 어린이들의 이가 빠졌을 경우 이를 우유에 담아 바로 치과로 가면 이를 살릴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플로리다 대학의 프랭크 코트박사는 6개월간의 연구에서 빠진 이를 다시 정착시키기 전에 물, 공기, 침보다도 우유에 보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흔히 치과의사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입안에 넣고 치과로 오라고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어린이 환자는 없으며 대개 종이에 싸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유에 담아가지고 오면 화장지에 싸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를 재생시킬 가능성이 80%나 더 높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WHIMOON 휘문제위 여러분께

모교 아이스하키팀을 환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로의 사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셔서 후배들의 경기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요일	일정	장소
7월27	화	경기 팽귄팀	(Westwood 아레나)
28	수	경기(오후6시45분 캐네디안팀)	(Chestwood 아레나 400 Chesswood Dr)
29	목		
30	금	경기(오후6시45분) 팽귄팀	(Westwood 아레나)
31	토	환영회 오후7시 한국관	
1	일	연습	
2	월	나이아가라폭포관광(1시 공원에서 B B Q)	

* 연락처 : 김태식교장(742—5510)
HERITAGE 인 R317
(385 REXDALE BLD)
강치영회장(243—2769)
류봉천부회장(827—5222)
정윤상총무(423—7170)

WHIMOON 휘문 휘문 VICTORY, VICTORY

FALLIS U-SAVE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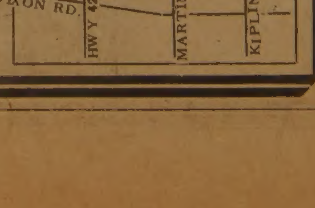
◇◇ 스페샬 ◇◇

⊙ Pepsi~Cola(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 바바라여사

○문: 저는 캐네디언이 경영하는 작은 회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일이 많을때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 점심을 한식으로 가지고 와서 먹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점심먹는 방도 따로 없는 실정이며, 만약 제가 김치같은 한국 음식을 가지고 오면 직장 동료들이 강한 한식냄새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퀸즈웨이·미스 박〉

●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무실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아마 다른 동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김치나 다른 한국음식이 그들에게 그리 큰 자극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협소한 사무실에 통풍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냄새가 좀 나겠지만 그것 또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귀하가 정말로 동료를 의식한다면 창문이나 에어컨통풍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짐작으로는 귀하 직장의 동료들은 귀하의 음식에 호기심을 가질 것 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맛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죄송스럽게 느끼실 필요는 없읍니다.

캐네디언 직장서의 한식 도시락 문제될 이유없어
건방져 보이는"캐나다인 행동에 과민말아야
채식주의자 초대땐 미리 안먹는 음식 알아보길

부언해서 어떤 미국음식도 외국인들에게는 구역질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있을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치즈가 왔는데 저의 가정부가 코를 비틀며 피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대만에 있을때 어떤 소녀는 로스트·비프 냄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대부분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미국사람에게서 어린아기의 음식인 우유냄새가 난다고들 하지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남의 나라 음식보다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지요.

아마 귀하도 아시겠지만 최근 많은 서양사람들이 한국음식에 사족을 못 쓰는 경우가 있읍니다.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문: 작은 변두리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저의 이웃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 불고기와 갈비, 바베큐를 좋아해 별 문제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웃중 한 부인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해서 약간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않고, 또 달걀이나 생선도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어떻게 바베큐요리를 만들어야 되는지요? 〈배리·오〉

●답: 채식주의자들은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등을 먹지 않으나 어떤 사람은 닭이나 생선, 그리고 달걀은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물성 식품은 우유를 비롯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선 그 부인에게 연락,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때 김치속에 굴을 넣는 것을 보았읍니다. 만약 이 부인이 일체의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굴이나 멸치젓, 또는 새우젓이 있는 김치는 곤란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고기나 달걀은 들어가지 않은 한국음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맛있는 음식을 장만, 이웃과 즐거운 하루를 가지시가 바랍니다.

○문: 그리 큰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만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월터라고 하는 캐네디언직장 동료에게 성냥을 빌리자고 했읍니다. 그는 「Sure」하며 성냥을 던져주었는데, 약간 난폭하게 던져 성냥이 땅에 떨어졌읍니다. 저는 성냥을 집어들을 때 은근히 화가 났읍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끔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람은 남에게 물건을 줄 때 절대로 던져서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합니다.

서양사람 모두가 월터처럼 행동하는지요? 아니면 월터의 그런 행동이 그가 저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인지요? 〈오렌지·빌·김〉

●답: 저는 그의 행동이 암암리에 어떤 암시를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봅니다.

월터는 어떤 건방진 생각을 가졌다든지, 또는 귀하를 격하시키려고 그런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아마 귀하가 지적한 것처럼 바로 그때가 그의 변덕스러웠던 때인것 같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모든 서양사람이 다 그렇게 변덕스럽지는 않읍니다. 어떤 사람은 잘던지기 하고, 또 어떤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대개 잘 못던졌을 때는 「Sorry」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나, 특히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던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건네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한국사람처럼 두손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때 두손으로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을 배웠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한손 또는 두손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두손을 사용하는 것이 공손하고 존경을 나타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짓이나 보디·랭귀지는 언어와 문화의 일부라고 여겨집니다. 월터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낄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보디·랭귀지)은 그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보며, 귀하는 이곳의 새로운 면을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한국에 살면서 성냥을 던져주었다면 저는 그에게 보다 공손하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런것들은 문화간의 이해의 문제라고 보겠지요.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35>

殺意斷層 ②

「박우용씨 계시는가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우용(朴宇鳳)은 그녀의 오빠였다. 잠시 후 그가 나왔다. 언제 들어도 오빠의 목소리는 느리터분했다.

「웬 일이지?」

「저기 오빠……」

그녀는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한다는 말이

「차 한잔 사주실래요?」

「차?」

동냥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한것같았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던 것이다.

「바쁘시면 관두시고요.」

「아, 아니야. 바쁘진 않아. 무슨 일 있니?」

「만나서 말씀드릴께요.」

「퇴근시간 다 돼가는데 이왕이면 퇴근하고 만나자.」

「네, 그래요.」

6시30분에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만나기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람들이 와글 거리는곳보다는 그런 곳이 더 나을 것 같아 그곳으로 장소를 정한 것이다. 약속시간보다 30분전에 덕수궁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와보는 것이었다. 와글거리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다는 것이 사뭇 신기하게 느껴진다. 올때마다 느끼는 기분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전, 그러니까 대학에 다닐 때에는 사흘거리로 덕수궁을 찾았었다. 그때는 여러 남자들과 번갈아가며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빠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 시절에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한곳이 바로 덕수궁이었다. 젊은 연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빠듯한 공간이 없는 삭막한 도심에서 그래도 고궁이라도 하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각되고 있던 터였다. 지금도 꽃은 그렇지만 해만 지면 젊은 남녀들은 짝을 지어 고궁을 찾아들곤했다. 그곳에는 남의 눈을 피해 달콤하게 속삭일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많았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면서 연애시절 뭇남성들과 걸음을 멈추었던 은밀한 장소들을 찬찬히 눈여겨 보았다. 덩굴나무 밑 벤치, 한아름되는 은행나무, 이끼 낀 돌담, 달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추녀밑, 석조전 돌기둥 뒤, 차가운 돌계단, 화장실을 끼고 숲 [illegible] 자리잡고 있는 외진 뒤꼍…. 어쩌다 일찍 들어올 때면 얼른 날이 저물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해지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다보면 가슴은 더욱 불타오르고, 그리하여 마침내 땅거미가 지면 입술이 부르트도록 키스하지 않았던가! 그때의 그 신선한 충격과 쾌감은 두번다시 맛볼 수 없겠지. 그때 그 사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중에는 키스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들어오는 사내도 있었다. 벽에 밀어붙여놓고 공격을 퍼부어댔다. 발을 구르며 안타까와 하다가 급기야 「에이, 배른이라면 얼마나 좋아」하고 무던거리는 바람에 어마나 배를잡고 웃었던가.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녀는 석조전 돌 계단위에 털썩 주저 앉았다. 턱에 손을 괴고 앉아 멍거니 분수를 바라보았다. 괜히 오빠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오빠라고 뾰족한 수가… 괜히 찾아왔지"

朴 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여름철 특별세일

세일기간이 2주 남아있읍니다.

—~82년8월7일까지—

45% Off!

Noritake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 656-4315 Mrs. 최

변호사會社가 생긴다

법무부試案 辯護士法개정 「法務法人」 도입

5人이상구성 專門·大型化
登錄업무 辯協에 이관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모여 만드는 변호사 회사같은 형태의 「법무法人」이 생기게되며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관장해와 논란의 대상이되곤했던 변호사의 등록및 개업에 관한 모든 업무가 대한 변호사 협회로 전면 이관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대법원및 재야법조계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서를 발송했는데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변호사법개정시안은 날로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는 고도산업사회의 늘어나는 법률문제수요에 전문변호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적기능을 보장하기위해 마련한것이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변호사 징계권만은 종전처럼 법무부장관이 계속 갖도록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10년이상자 2인이상을 포함한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와 법인등기를 설립요건으로했으며 구성원이외의 변호사도 고용할수 있게했다.

시안은 또 법무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기위해 현재임명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만맡고있는 공증업무도 취급할수있도록 특전을줬다.

법무법인의 설립은 강제규정이 아니기때문에 희망하는 변호사들만이모여 구성할수있는데 이에따라 재야법조계는 ▲개인사무실 ▲합동법률사무실▲법무법인등 3자가 공존하게된다.

시안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중 결원상태가 3개월이내에 보충되지않거나 위법한 업무집행을 할때는 법무장관이그 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또변호사단체의 자율적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변호사등록권을 대한변협에서 관장하도록하는외에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특정지역에서의 개업을 명할수있게한 현행「개업지시권」을 삭제했다.

또 법무부장관의 변협총회 임석권과 의사정지권도 삭제했으며 변호사단체에 이사및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1년으로규정된 변호사단체의 회장등 임원의 임기를 변호사들의 재량에 맡기위해 회칙에정할수있도록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보장에 따른 사회봉사기능의 확충을 위해 대한변협에 법률구조회를 설치할것과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할것도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법적근거없이 변호사 사무를보조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임용자격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변호사법에 규정된 비현실적인벌칙들을합리적으로상향조정하거나 처벌에단력성을갖도록했다.

말聯大使등 信任狀 全大統領, 제정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상오 청와대에서 압둘·아지즈·빈·모하메드 신임 駐韓말레이지아大使(사진)와 노르베르토·모랄레스·바에스테로스 신임駐韓콜롬비아大使, 아우구스토·페레스·안다 에콰도르 초대駐韓常駐大使로부터 신임장을 각각 제정받았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프랑스外相 5일來韓
經濟협력 對北韓정책등 논의

클로드·셰이송 프랑스外相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2일 발표했다. 그런데 미테랑 社會黨정부가出帆한후閣僚級인사가 來韓하기는이번이처음이다.

◇세이송佛外相

세이송외상은 滯韓중 정부고위인사를 예방하고 韓·佛양국간의 既存우호 협력증진과 양국頂上의 상호방문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李範錫장관과의 외상회담에서는 미테랑정부가 示唆해온 對北韓승인문제,한국의 평화통일노력에대한 프랑스의 지지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전반에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회담에서는 또한 한국의 제5차 5개년계획 참여, 특히 서울—大田간 高速電鐵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참여등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상회담에서는 그밖에도▲제3세계와의 관계발전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문제 ▲中東지역 에서의 건설사업등에 대한 양국의 合作투자등 補完的 협력방안▲프랑스에서의 한국 古美術展 개최문제등이 협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세이송 외상의 방한에이어 오는 9월 미셸·조베르對外協力相과 미테랑 대통령의외교담당보좌관인 마슈페르 上院의원이 한국을 방문할것으로알려졌으며 미테랑 대통령의 年內訪韓문제도 거론될것으로 알려졌다.

세이송외상의 訪韓은 작년 4월 퐁세前외상의 訪韓에이어 두번째이며 세이송외상은 부인과 누와빌亞洲국장등 수행원 4명을 대동한다.

貸出기간 銀行자율로
金通委 최고期間 폐지 2일부터 實施

은행대출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융자기간은 자금용도나 은행의 재원조달상황에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되고 가계자금대출이 제도화되며 기업운전자금은 단기자금중심의 한도거래제를 적극 활용토록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은행자율화를위해 20개금융부문자금운용규정가운데 13개를 폐지하는등 금융기관여신업무에 관련된 제규정을전면적으로개편, 8월2일부터 실시토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으로 규제하던 대출최고기간이 폐지되고 은행마다자금능력범위내에서 자금용도에따라 융자기간을 적절히정할수있게됐다.

그러나 金通運委는 대출기간의 장기화로인한 은행경영의 어려움을 막기위해 1년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의 3분의1 범위내에서 거치기간을 인정하는 한편 거치기간이후에는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분할해서 대출금을 갚도록했다.

은행법에의하면 각은행은 자기자본과 1년이상 예적금채권발행액을 합친금액에서 업무용고정자산과 1년이상 예적금지급준비금의 합계를 뺀액수만큼 1년이상의 기간으로 대출할수있어 융자기간이 폐지된다해도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중은행으로서는 장기융자를 실시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金通運委는 지금까지 은행의대출금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크게나누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자금,가계자금, 공공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토록 가계자금항목을 신설하고 가계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운전자금은 상업어음할인등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공급하는동시에 한도거래제를 활용하고 1년마다 융자한도를 새로 정하도록했다.

金通運委는 지급보증 심사도강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할때 보증용도와 규모등에대한심사를 철저히하는한편 지급보증의뢰인도대출할때와똑같은신용조사를하도록했다.

"「예금實名制」병행을
民正, 對政府간담회서 일정기간假名도"

정부와 民正黨은 22일 낮 經濟閣僚및 고위정책관계자회의를 열고 「7·3조치」補完대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 黨政간의 견해조정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民正黨은 「7·3조치」중 實名去來制를 내년7월1일부터 실시하되 全面실시한 경우 경제전반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預積金등에 관해 實名制와 無記名 또는 假名制를 일정기간동안 竝行하여 단계적으로실시할것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또 利子所得및株式거래利益分에 관한 綜合課稅制실시도 모든과세자에대한 처리능력이 갖추어질때까지 잠정적인 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陳懿鍾정책위의장은 『정부측補完策과 民正黨의 보완책이 서로 확정되지않은 단계에서 검토사항에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정부도 公聽會를거쳐 최종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작업과정에서우리측의견을많이참작키로했다』고말했다.

이날회의는 정부측에서 金埈成부총리·姜慶植재무장관·金在益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民正黨에서는 陳의장·朴泰俊국회재무위원장·黃炳俊정책연구소소장·金鍾仁의원등이 참석했다.

公聽會뒤 7·3代案
民韓 時機·문제점單一案못내

民韓黨은 7·3經濟조치와 관련하여 이달말이나 8월초에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들은뒤 黨의代案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民韓黨은 22일상오 확대간부회의를열고 黨정책심의회가 상정한 7·3조치의 실시시기및 문제점에관한 複數案을놓고 논의한결과 單一案을 결정치못하고 23일상오 당소속 국회經科·財務위원연석회의를 열어 政策委案을 확정하고 이案을 토대로 공청회를 소집, 各界의견을 종합한뒤 「7·3조치의代案」을 마련키로했다.

黨정책심의회는 이날중 代

정을 補完해 정부방침대로실시토록하자」는 의견과 「분위기조성이 되기까지 4·5년간 留保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얻지못했다.

정부의실시기찬성측은「그 주장의 근거로써▲정부에 앞서 黨이 實名制를 주장해왔고▲張여인사건이 實名制실시의 계기를 만들었으며▲지금이 不況期로서 이 시기가 地下經濟를 산업資本化할 수 있는 適期라는 점등을 들고 있다.

반면 保留측은▲私有재산致富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으로 인한 심리적 현상으로 기업이 자기재산의 대외공개를 꺼리고있으며▲기업이 재무구조를 보완하기위해 심리적,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야한다는 점등을들어 實名制전면실시에 앞서 實名制와 假名制를 병행, 86년6월30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그이후 조사된 陰性자금에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추적하고 追徵金을 가하는등 강력한행정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연기의 주장자들은 특히 黨이 추산하고 있는 地下경제는 약13조원으로 이중 財閥기업의 소유가 8조원이라고 추정, 다량의 地下경제를 자기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기위한 분위기조성을 강조했다.

"日 교과서의 역사歪曲은 重大문제"
국회 文公委 소집 검토

국회는 최근 韓日간에 물의를 빚고있는 日本文部省의 歪曲된 교과서 檢定과 관련된 문제를 추궁하기위해 文公委의 소집을 검토하고있다.

韓柄寀 국회문공위원장은 22일 『日本교과서에 韓日간의 역사적 사실을 歪曲한 내용이 게재되었다는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野黨측에서도 이문제를 다루기위해 국회文公委를 소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는데 文公委소속의 林在正(民韓)·姜根弼의원(국민)등은 『日本측의 그러한 처사는 도저히 默過할수없는일』이라면서 文公委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麻藥등 犯罪단속 韓·日실무자회의

麻藥및 覺醒劑 범죄단속에 관한 韓日실무자회의가 22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2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회의에는 한국측에서 李在春외무부 東北亞1과장수석대표)을 비롯 내무·법무·재무부 (관세청)·보사부의관계자들이, 일본측에선 오쿠라·가즈오(小倉一夫)외무성東北亞과장 (수석대표)을비롯 경찰청·법무성·후생성·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婦女子쫓는 이軍兵士들 무장한 이스라엘軍 병사 한명이 21일 레바논의 시돈에 있는 이스라엘軍政廳밖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 부녀자들을 쫓아내고 있다. 【시돈 (이스라엘 점령 레바논) 21日UPI=聯合】

이、레바논과 곧 平和조약
3國 平和路線형성

【예루살렘22日AP=聯合】이스라엘은 곧 레바논과 평화조약을 체결,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3국이 中東의 통합평화定着노선을 형성하게될 것이라고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이 21일 말했다.

베긴수상은 이스라엘최고재판소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평화조약을 체결할경우 3국국민들은 3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수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金값 폭등勢로 美高金利引下 자극

【런던21日AP=聯合】미국의金利가 하락추세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힘입어 21일 유럽의 金시장에서 金값이 최근수개월래 최고수준인 온스당 3백68달러선으로 폭등했으며 여타지역에서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의 金시장에서 金값은 전날 폐장가보다 온스당 9·25달러가 오른 3백61·50달러에 개장돼 지난 2월25일이래 최고수준인 3백6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3백65·75달러에 폐장됐다.

日、經協代案 오늘전달

日本정부는 韓日經協문제에대한 일본측의 代案을 23일 고또·도시오 (後藤利夫)駐韓일본공사를 통해 외무부에 전달할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22일 『韓日마약관계실무자회의차 22일 내한한 日本外務省의 오구라 東北亞1과장과함께 23일 고또 駐韓公使가 外務部를방문, 공식으로 전달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구라과장은 일본측代案을 외무부에 전달할때 그동안 일본의 관련부처간의 협의과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社会漫評

큰 국민되긴 틀렸고…

地平線

방학이 시작되면서 걸·스카웃 야영을 다녀온 꼬마가 집에 들어서자 화장실로 뛰어 든다. 꽤 오래 있다 야영지의 화장실이 낯설고 아마 긴장이 겹친 탓도 있고해서 2박3일 동안 한번도 뒤를보지 못했다고 푸념을 한다 약간 변비기운도 있었던 모양이다.▼아침부터 좀안된 얘기지만 사람이 먹은 음식물이 배설되기까지는 10~24시간이 걸린다. 소화흡수된 나머지가 직장에 괴면, 그것이 자극이되어 화장실 갈 생각이난다. 그와 같은 반사작용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 위를 자극했을때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침 하루 한번』의 리듬은 아주 자연스런 생리현상이다. 일생 건강을 위하여 그 같은 습관을 일찍부터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좋다.▼그런데 요즘 그런리듬을 잃어버린어린이가 많다는 말을 유아교육에 관계하는 친구로부터 들었다. 숙제를 한다거나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해서 늦잠을 자면 시간에 쫓겨 『아침, 하루 한번』을 참고 견디는 수가 생긴다. 운동부족과 섬유질식물의 섭취가 적은 것도 화장실 「생략」의 원인이 된다. 수업시간중에 「배가 아프다」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대개 이런 경우다.▼그 친구는 이말을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증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유치원을 보고 놀랐던 체험도 말했다. 유치원의 교육내용이 예절바르게 식사하는것, 화장실을 바로 쓰는 법, 낮 잠을 재우는 것외에 별것이없더라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그것 뿐이냐』는 물음에 그곳 책임자는 『그 3가지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더란 얘기다.▼그가 흥미깊게 살핀 『아침,하루한번』의 교육내용은 이런것이더란다. —유치원에 오기 2시간전에 일어 난다. 일어나면 굿모닝, 아침인사를 한다. 이를 닦는다. 아침은 남김없이 먹는다.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온다. 집을 나설때 「다녀오겠읍니다」인사한다. 이런 것이 싸여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習慣, 자기 생활의 관리능력을 갖추게 된다.▼많은 그렇다. 예능교실이라고해서 재롱을 키우는 것만이 유아교육은 아니다. 유치원에서 허겁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조기교육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 생활習慣이 교육의 第1章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여당이 「유아교육진흥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유아교육의 참모습이 어떤것이어야 할기에 생각이 미친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보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 7961(B)
690-5217(R)

인사말씀

금번 이헌영씨께서 주정부 부동산 AGENT 면허를 획득,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에서 일하게 됨을 인사드립니다. 지난 13년간 캐나다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성실과 열심을 토대로하여 여러분께 봉사코저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본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은 이헌영씨와 강정숙여사와 함께 한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이 헌영 686-0207, 839-8889(R)
강 정숙 745-1915, 244-8918(R)
황 용현 286-1548(R)

삼복식품

삼복식품은 가장 좋은좋은 상품만 골라, 가장 싼값으로 여러분께 봉사합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절대품질보장!
절대정직!
절대신용!

소면국수, 솔표겨자, 오뚜기 카레, 펭귄표 꽁치통조림, 펭귄표 고등어통조림, 맛있는 농심라면, 한국특산품 남해 김, 순한국산 엿기름, 순 한국산 보리차, 순 한국산 메주가루, 순 한국산 고추가루, 맛있는 닭표 간장… 등등.

★한국에서 새로 수입한 Video Tape 일주일에 $5로 빌려드립니다.

주 소: 2437 Finch Ave. W.
☎: 743-8270 김 규 석

감사말씀

제2회 민족상시상식을 마치고

보람다운 민족행사인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 몸소 찾아오시어 축하해 주신 교포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자 네분께 다시 축하드립니다.

특히 멀리 타지역에서 참석하신 수상자들과 축사를 위해 몬트리얼에서 일부러 오신 오기송 박사께 뜨거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화분을 보내어 이날 행사를 빛내주신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한인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D.Y.Import(사장 오기환)·하르빈한약상사(대표 서춘봉)의 4개 단체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민 여러분의 더 한층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민족상이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하기를 위원 일동 전력 다할 것을 기약합니다.

1982년 7월 26일

캐나다한인민족상위원장 구 상 회
토론토 한국일보사장 김 명 규

PLO "美의 「獨立國창설보장」없으면 레바논 안떠나겠다"

"美와 직접對話" 등 요구

이側 "새軍事행동" 示唆

【베이루트21日外信綜合=聯合】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철수시한을 23일로정하고 이날까지 철수치 않으면 24일 서베이루트 침공을 감행할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미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양보를 얻어내기전에는 결코 레바논을 떠나지 않겠다고 맞서있다.

아랍 외교소식통들은 PLO은 ①미국이 PLO와 직접대화를 해줄것 ②팔레스타인의 자결권및 독립국창설 권리를 인정해줄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PLO의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줄경우 PLO도 다른 아랍국들과함께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할것이라고 말했다.

PLO는 또 미국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레바논내의 PLO 존재문제에관해 기꺼이 양보, 7주째 접어든 PLO게릴라―이스라엘군 전쟁을 종식시킬수있는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이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20일 워싱턴에서열린 레이건 대통령과 사우디및 시리아외상들과의 회담을 PLO의 이러한요구조건이 충족될수있는 외교협상의 첫단계로 간주하고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한 미국의 양보조치를 저지할목적으로 대대적인 외교활동 또는 새로운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루살렘21日AP=聯合】이스라엘은 21일 이스라엘軍에포위되어있는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 대해 새로운 군사행동을 취할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합참의장인 라파엘·에이탄장군은 이날 의회의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스라엘軍이 西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을 쫓아내기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탄장군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관측통들은 이스라엘의 이같은위협을 『가볍게』생각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착잡한 美中東특사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左)가 21일 레바논지도자들과 만나 현 레바논사태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진뒤 모리스·드레이퍼美국무성차관보와함께 레바논대통령궁을 나서고있다. 【베이루트21일AP電送=聯合】

波、정치범 千여명 釋放

【바르샤바21日UPI=聯合】폴란드軍政지도자 야루젤스키장군은 21일 외상을 포함한 일부각료를 경질하고 1천2백27명의 정치범을 전격 석방하는한편 7개월째에 접어든 이나라의 계엄령이 금년이내에 해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권구국군사평의회의장이며 공산당제1서기및 수상을 겸하고있는 야루젤스키장군은 폴란드공산정권수립 38주년 기념일을 하루앞둔 이날 군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된 의회연설에서 이같이말하고 오는8월로 예정됐던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2번째 고국방문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야루젤스키장군은 지난해 12월13일 계엄령이 선포된이후 투옥중인 자유노조인사등 2천여명의 정치범중 다수가 석방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군사평의회의 한대변인은 당국이 투옥중인 모든 여성을 포함해 모두 1천2백27명을 석방 또는 가석방하고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및 야체크·쿠론등 6백37명은 계속 억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없이 우는 波國民들

戒嚴선포 7개월…인플레까지 겹쳐

「敎皇방문연기」등 충격

「우리의 봄」어디로 갔나

◇폴란드軍政 지도자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이 21일 의회에서 계엄령완화조치를 발표하고있다. 【바르샤바21일AP電送=聯合】

폴란드에 계엄이 선포된지 7개월하고도 10여일이 지났다. 계엄이 작년12월13일 선포되었을때 『겨울은 당신들(군부세력과 공산당)의것이지만 봄은 우리들의것』이라고 외쳤던 자유시민들은그 봄이 한참지났건만 여전한계엄통치아래서 여름을 맞고있다.

그동안 계엄해제에 대한 추측보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계엄은 자칫하면 해를 넘기게 될것으로보인다.

폴란드국민들은 지난 21일에있은 야루젤스키수상의 의회특별연설을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었다. 야루젤스키가 폴란드공산정권수립 38주년에 즈음하여 계엄의 향방에관한 특별연설을하기로 되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연설에는 신통한게 하나도없고 답답한 내용뿐이었다.

야루젤스키는 이연설에서 계엄의장래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 『오는8월로예정되었던폴란드출신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폴란드방문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을뿐만아니라 자유노조의 활동재개는 허용치 않을것』임을분명히했다.

야루젤스키가 취한 양보조치는 계엄위반으로 억류중인 2천여명중에서 1천2백명을 석방한게 고작이었다.

이석방에서 레흐·바웬사를 비롯한 자유노조 지도부등 비중 있는 反체제인사는 제외되었다.

이중에서 폴란드국민을 가장 실망시킨것은 교황의 폴란드방문이 연기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교황은 오는8월에있을 聖마돈나성화건립 6백주년 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고국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聖마돈나는 폴란드 가톨릭과 애국심의 상징이다. 교황이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의미가 계엄통치하의 폴란드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

폴란드 계엄당국자들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지난 79년에 있었던 첫번째 방문처럼 폴란드국민들의 자유화 열망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교황의 79년 고국방문은 폴란드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를 탄생시킨 한 원인으로 지적된 정도이다.

그동안 지하에 숨어 反정부항쟁을 계속해오던 자유노조지도자들은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反정부시위와 파업등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기도했다.

야루젤스키장군은 21일의 의회연설에 앞서 공산당지도층개편과 개각을 단행, 黨과군부에대한 자신의 지도체제를재확립했다.

그는 黨내 최고의 실력자인 올조프스키를 선전담당서기직에서 해임하고 경제전문가들을 黨요직에 대폭 기용했다.

폴란드가 당면하고있는 가장 급박한 문제인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조프스키의 해임은 그동안 실시해온 언론통제및 자유노조에 탄압이 예상했던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주다.

하지만 야루젤스키는 4일 뒤에 올조프스키를 외상에 기용함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는 딜레머를 여실히 드러냈다.

야루젤스키는 親蘇강경파인 올조프스키를 소련의눈치를 살피지않고 완전히 제거할수 있을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올조프스키는 지금까지 4명의 黨제1서기를 보필해왔으며 장래의 제1인자로 지목되던 정통파 각료이다.

비록 계엄을 통해 폴란드군부가 공산당을 제압하고있지만 아직도 공산당이 폴란드정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무시할수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야루젤스키는 黨지도층 개편과 개각을 단행하고 계엄통치의 계속을 의회앞에서분명히 천명함으로써 자신의전재함을 과시하는데 일단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야루젤스키가 취할수있는 길이 계엄통치의계속이라는 마지막 방법밖에없음을 反證해주고 있다. 그만큼 폴란드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험난함을 말해주고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지하자유노조의 反정부시위, 마이너스생산과 2백~5백% 가격인상의 인플레, 3백억달러이상의 외채, 3백만에서 1백만으로 당원이줄어든 공산당의 재건등등 폴란드가 당면한 난제는 산적해있다.

폴란드 反정부인사들은 가톨릭·자유노조·정부간의 三者會談개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三者會談 조건으로 우선 내세우고 있는것은 계엄령해제와 레흐·바웬사등 자유노조 지도자 석방및 자유노조의 재건이다.

야루젤스키의 이번 연설로 이에대한답변이 분명해졌다.

자칫하면 폴란드의 장래가 會談조건 제시와 이를 거부하는 계엄통치의 계속주장으로 순환논리의 악순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봄은 우리들의 것』이라고외쳤던 폴란드 자유시민들이 얻을수있는 진짜봄은 해를 넘겨 내년을 기약할지도 모를일이다.【李炳圭기자】

이란機、바그다드空襲시도

美製 팬텀機 2臺등 동원

【바그다드·런던21日AP=聯合】이란軍의 美製팬텀전투기 2대가 1년여만에 처음으로 21일 새벽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을 시도했으나 이 2대중 1대는 바그다드경비 이라크軍대공포대의 공격으로 격추되고 나머지 1대는 퇴각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란軍전투기들의 바그다드상공출격은 지난13일 이란軍이 對이라크침공을 개시한이래 이라크軍이 매우 유리한 戰況하에 있으며 양국의 전투가 對이라크접경 일대에 국한되어있다는 이라크측 발표가 나온지 불과 수시간만에 감행된것이다.

比前부통령등 被襲 銃彈4發맞고 負傷

【마닐라21日AP=聯合】前필리핀부통령을 지낸 필리핀 신사회운동당소속 국회의원 이마누엘·펠라에스(66)씨가 21일밤 자택근처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부상했으며 그의 승용차운전사는 사망했다.

埃조종사 이라크軍에 合勢

이란南部 空襲出擊 兩軍 연3일째 교착

【런던21日UPI=聯合】이란은 21일 이라크공군기들이 이란남부의 유전지대인 후제스탄省 아바즈의주거지및비군사지역을 폭격, 5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밝히고 이라크의 공습에 이집트조종사들도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란軍과 이라크軍의 地上戰은 한낮의 최고기온이 섭씨5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와 시속20~25노트의 모진모래바람때문에 이라크영내4·8㎞언저리에 연3일째 교착돼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美정보소식통들은 10만명의 이란軍이 처음에는 이라크영내로 9.6~16㎞까지 진격했으나 지난주말을 고비로 국경가까운 지점까지 퇴각했다고 밝혔으며 이라크軍코뮈니케는 이라크軍이 이란국경으로부터 불과 4㎞떨어진 지점에서 이란軍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새벽爆彈폭발 미테랑 補佐官집

【파리21日EFE=聯合】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보좌관 레지·데브레이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21일새벽 폭탄이 터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파리경찰이 밝혔다.

전날밤 파리시내의 한카페앞에서 강력한 폭탄이 폭발, 15명이 부상한지 불과 4시간만에 또다시 폭탄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파리경찰은 초비상경계체제에 들어갔다.

◇행복한 犬公 서독의 발하임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한미녀의 엉덩이에 누워 보초를 서고있는 행복한(?) 복슬강아지.【UPI】

메아리

都産과 倒産

컴퓨터부품을 생산하는 美國系 다국적 기업체인 컨트롤·데이터·코리아(CDK)社가 20일 閉業을 신고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收益性惡化이고 다른하나는 勞使분규의 격화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CDK의 美國본사가 근래 經營부진으로 45개海外支社중 12개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그중 런던支社는 이미 6월20일에 폐쇄했다 한다. CDK도 정리의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현재의 칩生産보다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로보트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그대로 존속시킬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술렁거리기 시작한 勞組속에 都市産業선교회의 손이 뻗게됨으로써 勞使간의 대립은 분규로 급진전하고 격렬한 마찰로악화됨으로써 도리어 CDK도 「閉鎖」쪽으로기울어진것이라 한다.

만일 CDK에 都産이 침투하지 않았던들 「倒産」은 면했을것이라는 견해들이다. CDK가 「로보트·코리아」정도로 轉業하고 있을법도 하다. CDK경영진도 韓國근로자들의 성실성·근면성·높은 노동생산성을 아깝게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보면 근로자속에 파고 든 都産이、勞使간 원만한 타결이나 인간관계의 순화를 이룩했었다면 멀쩡한 회사가 문을 닫고 3백50명의 종업원이 실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것같다.

CDK속의 都産세력은 온국민이 「한자리 숫자」의 보수인상률에 협조하고 있을때 49%의 봉급인상을 요구했다한다. 근로자의 처우나 복리향상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는 일반勞組와는 달리 都産은 「社會구제」라는 투쟁 구호를 앞세우기 일쑤였다.

「宗教의 사회참여」를 두고 可否를 따지는 神學的논쟁은 아직도 결말을보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可否야 어떻든 그 社會參與가 CDK의 몰락과같은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는 결코 「救援」이 아니다. 뿔을 바르게 잡으려는 마음에서 였다 할지라도, 지나쳐서 소를 죽였다면 「구원」이란 변명은 서지않기때문이다.

解放신학자 몰투만교수는 「사랑」과 「暴力」의 연관을 여러모로 강조했지만 우리로선 수긍이 잘 안간다. 나라의처지、자신의 위치를 생각할때 더욱 그렇다. 내외 일부에선 이번 일때문에 都産을 두려워해 海外의 投資家들이 對韓투자를 기피하려들지나 않을까하며 우려하고 있다. 都産측의 自省있기를 바라고싶다. 「都産」으로인한 「倒産」이 속출될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으리라는점、잊지말았으면 한다.

海外토픽

駐日 美병사 日청년에 뭇매

술취해 "치사하게 돈번다" 소리질러

일본 東京의 유명한 환락가 신주쿠(新宿)의 디스코클럽에서 한미군병사가 일본산업스파이사건과 관련, 일본인욕을하다가 뭇매를 맞아 전치3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21일밤 미드웨이航母 소속 마크·바르슈수병이 휴가중 디스코클럽에서 술에 취해 『IBM 산업스파이 재판이 22일부터 시작된다』는 기사가 실린 英字신문을 휘두르며 『일본인은 치사하게 돈을 벌고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때 일본인 구경꾼중에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바르슈사병의 말을 통역해주자 주위에 있던 일본청년들이 벌떼처럼 달려든것.

바르슈수병은 맞으면서도 『일본인이 제일 싫다. 원자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 일본청년 한명이 유리주전자로 바르슈수병의 머리를 치고 다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배를 찌른 후 도망쳤다. 【東京=宋孝彬특파원】

崔泓熙에 온갖歡待 反韓활동 盡力당부

【서울=聯合】北傀는 지난5일 入北한이래 약2週간北韓에 체류하면서 北傀집단의 金正日세습찬양、對韓모략비방등 反民族的행각을해온 崔泓熙에게 온갖 환대를베푸는가하면 다시 캐나다에돌아가 親北反韓활동에 진력할것을 촉구한것으로 20일 北傀平壤방송이 보도했다.

北傀는 19일 崔의 離平에앞서 對南統一戰線조직이며 위장평화선전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 주최로 연회를 베풀고 그동안 崔의 親北·反韓활동에 謝意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캐나다에 귀환하여 적극적인 反韓운동과 駐韓美軍철수、北傀의 고려연방案 선전에 떨쳐나설것을 촉구했다고 北傀의이방송은전했다.

27일「82유니버스」앞둔 페루表情

허술한 大會준비 각국美人들 골탕

특파원 報告

투우장에 지붕씌워 舞臺로 텐트속서 猛訓…行事무성의

"서울대회는 成功的" 모두가 찬사

『오늘도 해는 안보이는군요. 페루국민들은 해를 몹시 그리워한답니다. 지금 여기는 겨울이지요(섭씨15도). 비가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따금 실비가 내리면 지붕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감기를 들곤 한답니다』

오는 27일의 82미스유니버스 결선 취재를 위해 페루의 수도 리마에 막 도착했을때 호텔안내원이 들려준 얘기다.

안데스산맥을 끼고 있는 태평양연안의 나라 페루는 인구가 1천8백만이지만 면적은 한국의 12배나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8백달러이니까 남미에선 못사는 나라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페루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긍지가 있다고 한다. 빈부차가 크며 소수백인들이 잉카 인디언을 다스리고 있지만 석유·석탄·은등 자원이 풍부해 정부가 안정되었고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면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될수있을것으로 믿고 있다.

거리엔 헤드라이트가 하나밖에없는 차들도 마음놓고 달리고 있다. 브라질産 파사타라는 폭스바겐인데 10년넘은 비틀퀸이 리마의 거리를 판치고 있다. 영업용택시의 요금은 타기전에 흥정을 해야한다.

한국인은 외교관 가족을 합해 50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상품종합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한국을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곳에서도 부정부패란 말을 자주들을수 있다. 마약밀수범이 교도관을 매수해 교도소정문으로 버젓이 탈옥(?)할수 있는가하면 가난한사람은 먹을게없어 교도소를 자택으로 삼기도 한다.

법은 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람사는 형편에 따라 법도 적용되는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질서하면서도 그속에 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질서가 있는것처럼 보이는곳이 바로이나라다.

화폐단위는 솔(태양이라는 뜻)인데 그가치는 우리나라 원과 비슷하다. 검은 연기를 뿜는 버스 요금은 90솔.

버스타는 사람은 긴줄을 서야한다. 새치기는 없다. 빈곤속에도 민주주의가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공산당도 있으며 좌익이 센 나라(좌익지지율은 전유권자의 38%로 추산되고있음)가 페루의 오늘이다.

북괴는 통상대표부를 리마에 두고 유일한 南美발판으로 삼고있다.

거리에 헌책행상과 책방이 많은것이 인상적이다.

『이가난속에 어떻게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치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막식이 열리고 미녀들의 퍼레이드가 끝나면서 무엇인가 되어가는것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27일 상오10시(페루시간 26일 하오8시) 82년 미스유니버스결선대회가 위성으로 각국에 중계된다. 처음엔 미국측과 페루측의 손발이 맞지않아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개막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행사가 예정대로 맞춰지고있는것같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미국측 사람은 대개가 80년 서울 미스 유니버스대회에 왔던 사람들이다. 미스 유니버스회사 사장 글래서씨를 위시해서 이름없는 목수까지 『서울 같은 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80년 서울 대회가 치밀한계획、차질없는 진행으로 매우성공적이었음을 몇번이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이곳에서는 대회 닷새를 앞둔 22일까지도 아직 프로그램이 발간되지 않고있다.

리마무대는 투우장을 개수、지붕을 씌웠는데 주최측이 팬 아메리카라는 TV회사여서인지 TV카메라는물론조명기계까지 최신식미제기계로들어차있다.

무대개수공사가 늦어져 미인들의 무용훈련에 차질이있었던것이지금은서커스텐트속에서맹훈련중이다.

도착후 언어소통이 불편했던 미스코리아 朴仙嬉양도 이제는 나름대로 친숙해진 다른미인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이에앞서 열린 특별부문심사에는 의상상1위에 페루、2위에 브라질、3위에 우루과이가 차지했으며 사진기자들이 뽑는 사진인기상은 한국系 미스 괌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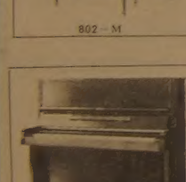
기자가 느낀 리마의 첫인상은 앞으로 개발의여지가 많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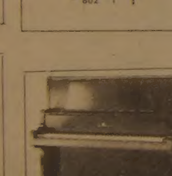
【리마(페루)22日=金泰雄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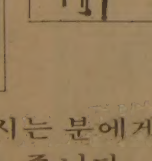
여름철특별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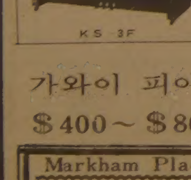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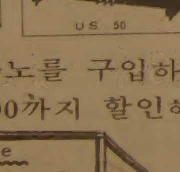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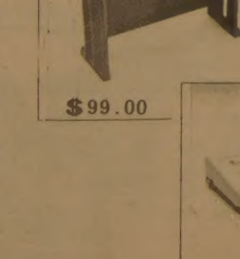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 ~ $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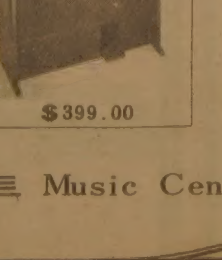
BONTEMPI이태리안 올갠



$99.00

$39.95

$799.00



$399.00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보그를 닮아라" 美테니스界 여전히 人氣

『보그의 테니스를익히자』 스웨덴의 슈퍼·스타 비욘·보그의 위력은 잠시 약화되는 듯하나 미국의 테니스선수들 사이에는 보그의 스트로크를 그대로 복사하려는선풍이 계속 일고 있다。 ●보그형의 장발과 머리띠, 웨스턴·포핸드·그립, 퐁차식의 큰 와인드·업에 볼을 계란 모양으로 찌그러뜨리는 톱스핀등。 보그의 강한 스트로크는 테니스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 매력적인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의 보그」들은 그의 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다。

◇보그의 백핸드。 전세계의 많은 선수들이 그의 타법을 익히려하나 오히려 잘못이해, 곤란을 겪기도한다。

독특한 스트로크 흉내…百萬명이 「亞流」
폼과 기술 너무 모방하다 오히려 낭패도

다음은 미국의 테니스전문가 데니스·미어씨가 월간테니스誌에 기고한「보그 모방자」들의 虛와實에 관한 글이다。

나의 테니스상담실은 보그의 톱스핀이 제대로 안돼 고민하는 선수들로 붐빈다。

그중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일부행운아들은 보그의 스트로크를 익히지만 대부분은 단지 흉내를내는데 그친다。 어린아이나 어른, 초심자, 선수할것없이 모두 슈퍼·롭스핀의열기에 빠져있으며 그중 99%는 제한된 성과만을 거둘뿐이다。

슈퍼·롭스핀선수들의 보증상표는 손잡이를 바깥쪽으로 쥐는 웨스턴·그립。 그리고 크게 백스윙, 라켓의 面이 완전히 지면과 수평을이루게하는 것이다。

일부선수들은 라켓의 앞면을 뒤로 젖힐수록 좋은것으로 믿고 라켓뒷면이 네트와 마주볼 정도까지 백스윙을크게 하기도 한다。

여기서 라켓을 내밀며 포핸드를 칠때는 손목을 크게 돌린다。

그결과 타구는 높이 원을 그리며 넘어가나 멀리 가지 못하고 네트가까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롭스핀이걸린 볼은 경험이 별로없는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웬만큼세련된 선수들을 위협하지는못한다。

보그 모방자들은 백핸드를 두손으로 친다。 보통 포핸드때 잡은 웨스턴·그립을 바꾸지 않고 다른 한손으로 힘을 버텨주기만 하는것이다。

이때도 역시 백스윙을할때는 볼을 치는면이 지면과 마주보도록 라켓을 충분히 돌려 뺀후 볼과 부딪칠때 세워 볼의 뒷면을 쓸어올리도록한다。 보그의 경기를 슬로·비디오로 보면 그는 모든 타구에 맹목적으로 스피드와 스핀을 가하는 기계적인 플레이를 하지않는다。

상황이 요구하는대로 스트로크에 변화를준다。

예로, 보그는 스핀을 덜 원하거나 타구를 낮게 깔고 싶을 때는 포핸드를 왼쪽 어깨위로 높이 친다。 그 경우 정상적인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손목은 돌아가지않는다。

반면 일상적인 포핸드를보면 오픈·스탠스에서 낮은볼에는 백스윙을 적게하고 왼발을 내디디며 롭스핀이 거의없는 정통적인타격을한다。

필름을 보면 보그추종자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백핸드·드라이브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는 오른손을 표준 이스턴·백핸드·그립으로 옮겨쥐고 왼손은 좀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키위해 오른손 윗부분을 잡는다。

그리고 라켓을 뒤로 젖히고 백핸드를 칠 준비를 하는데 볼을 기다리는 동안 라켓의 面을 지면에 근접시킨다。

바로 이것이 적어도 1백만명에 이르는 보그추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동작이다。

이 동작은 보그에게는 간단한 버릇에 불과한 것이다。

보그의 백핸드·스윙은 왼손이 주로 라켓의 이동을 따라가는 정통적인 것이다。

그가 발리를 잘 하는 것도 표준적인 이스턴·백핸드·그립때문이다。

거기에 보그는 빠른 푸트워크와 뛰어난 집중력 또 점수를 따 내려는 인내심을 갖추고 있다。

보그추종자들에게 『포핸드에 있어 다양성과 페이스의 변화를 익히고 이스턴·백핸드·그립을 사용하며 랠리중 발리를 하거나 어프로치·샷 드롭·샷을 할때는 그립을바꿔쥐라』고 충고하고 싶다。 【徐奭根기자】

마라도나는 이렇게 마크당했다

스페인 월드컵축구가 시작되기전 가장주목을 끌었던 세기의 스타가운데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디에고·마라도나。 그러나마라도나는 집중 마크에걸려 기대했던 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팬들의 실망이 컸다。 사진은 헝가리와 아르헨티나의 대전。사진①은 헝가리 선수가 볼은 제쳐두고 마라도나의옆구리를 낚아채고 있다。②는 헝가리 선수가 뒤에서마라도나의 발을 걸고있으며 ③은 마라도나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고 ④는 3명의 헝가리 선수가 마라도나를 포위하고 팔을 아채고있다。

海外 스포츠

로시의 神話 슛 적중률 83·33%!

記錄으로 본 스페인 월드컵蹴球의 새 皇帝

◇ 스페인 월드컵 축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축구왕제 이탈리아의 파올로·로시는 득점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슛 적중률에서 83·33%를 기록,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다。이 적중률은 월드컵 축구사상 로시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이것을 깨뜨리는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축구전문가들의 얘기다。 또한 이적중률은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로시는 브라질과의 대전서 3—2로 이길때 3골을 기록했다。 이 대전서 로시가 날린 슛은 모두 4차례。이 가운데 3골을성공, 75%의 적중률을 보였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

브라질과 對戰서 4번슛에 3골
폴란드와는 두차례 모두 成功해
로시 代表기용 伊신문들 처음엔 비난

◇스페인월드컵에서 탄생한 축구황제파울로·로시⑳。

로시는 준결승전 폴란드와의 대전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이경기서 로시는 두차례의 슛을 날려 모두 골로 연결시켰다。1백%의 적중률。축구 경기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다。

로시가 득점왕으로 부각되자 각팀의 로시에 대한 방어는 더욱 철저해 졌다。상대 수비는 로시에 붙이 가지 못하도록 집중 방어를 했다。따라서 로시에게는 볼을 다룰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좁어들었다。그러나 로시는 자신에게 찾아온 찬스는 꼭 골로 연결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폴란드와의 대전 첫골은 다리 숲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로시의 슛을 막으려는 경찰들이 골 문전에 깔려있었다。이 사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로시는 알고 있었다。축구에서 골을 얻는 세가지 조건은、재빨리 상황에 대처하고、필요한 장소에 자신의 위치를 잡는것이다。골을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이 었지만 로시는 골을 빼 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있었다。두번째 골은 콘티가 높게 센터링 해준 볼이다。이것을 발로 처리했다면 시간이걸리고 빼앗길 위협성이 있다。로시는 몸을 낮게해서 머리로 골을 만들었다。브라질및 폴란드와의 대전을 통해 로시는 83·33%의 적중률을 올렸다。

위대한 스타를 만들어내는데는 스타를 발굴할수있는 지도자의 안목이 필요하다。2년간의 출전정지 처분서 해제되었을때 이탈리아 축구팬들도 로시의이름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2년간의 형벌을 받는동안 로시는 소속팀인유벤투스의 연습에 꼭 참가했다。친선경기서도 한번도 뛰지못했다。로시는 훈련을 할때도 사신의 컨디션을 찾지못해 거의 버려진 선수였다。

그러나 베아르조 감독만은 그의 재능을 알고있었다。베아르조 감독이 로시를 대표선수로발탁하자 이탈리아 신문들의 비난이빗발 처럼 쏟아졌다。

『로시는 끝장이 난 선수다。알토벨리를 대신뽑고 로시를 버려라』고베아르조감독에게 집중포화를 가했다。 감독으로서 베아르조의 배짱도 대단했다。

『2년간의형벌에 유념하지 말아라。 너는 우리와 한께 있게되었다。신뢰를 가져라。열심히 노력해라。매스컴의 비난에 대해 격정하지 말라』고 베아르조감독은 로시를 격려했다。로시는 베아르조가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西獨과의 대전서 프랑스의 축구전문지 「풋볼」지는 로시를 아메리칸·인디언으로、西獨의 GK 토니·슈마커는 카우보이로 비유했다。『흰색깔의 토니는 붉은색의 인디언과 대결했다。 인디언 로시는 활을 들고 공격、권총을 찬 카우보이 슈마커를 이겼다』고 비유했다。

스페인 월드컵에 모습을 나타내기 전만해도 로시는 사기꾼이라고 불렸다。그러나 뛰어난 활약 덕분에 그의 순수성을 되찾았다。 【프랑스 풋볼誌에서】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2譜 1~22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각5시간·덤5집반)

名人戰挑戰棋중 한국을 해마다 초청하기로 결정한 浦鐵棋友會는 1천5백명의 동호자로 돌풍친 대가족이다。회장이하 감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조직력을 과시하며 마치하나의 법인체 처럼 바둑보급과 실력향상을위한 연중행사를 타이트하게 짜놓고 차질없이 실행하고있다。작년에는 名人戰초청이 처음의일이라서 모든면에 미흡했다며 제반시설·접대·숙박등 철저한 배려를했고 기록자도 아마4단급을 2명이나 배치하여 만전을 기해주었다。또대국장 관전출입도 상당히 제한하여 오히려 방안이 썰쓸할 정도였는데 그런대로 두대국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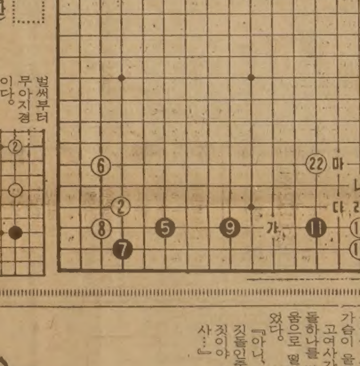
피차 逆을찌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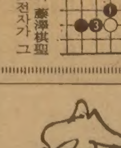
벌써부터 무아지경이다。

黑7、9는 정석。7로 「가」자리에두는 半中共式은 일본의 藤澤棋聖이 애용하는 형이라지만 도전자가 그걸 의식할 리는 없다。

그것보다 白12에 8분을 들인것은 이수를 「나」에 뛰면 黑16의 추격으로 우변에 黑세가 형성되므로 역을 찌르기 위해서이다。黑13으론는 참고도처럼 순하게 두어도 무방한데 일종의 라이벌심리랄까、白의 수문을 역으로 찌르기까지 무려 38분이나 숙고했다。

白14이하 黑21은 필연。白22를 태만하면 黑「다」白「라」黑「마」의 추격이 신랄하다。 【一凡】





美式 축구 선수 보호用 空氣 주머니 재킷 開發

힘과 힘이 맞붙는 격렬한 운동에는 선수를 보호할 프로텍터 개발이 스포츠과학의 책임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激技중 激技인 아메리카·풋볼의경우 어깨받이、헬미트、목받이、허벅지보호대등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할것이냐는 논의가 끝나 새제품이나올단계다。

이런장비중 인기를 끌고 있는것이 공기및 기포(氣泡)를 매체로 충격을줄이는 방법을 택한 美國 텍사스州 휴스턴市의 메드·에어(Med Air) 스포츠기구社제품。이 회사의 주인인 바이론·돈지스는 72년 공기 매트리스와 같은 바람넣는 테니스코트를 만든이로 공기를이용하는데 道가 튼사람이다。

돈지스는 휴스턴 오일러스 팀의 쿼터·백 댄·파스토리니가 운동중 갈비뼈를 다치자 공기주머니 재키트를 개발, 이를입혀 실전에 사용케 했다。

플래스틱에 공기를 넣은 이 재키트는 2×4인치의 야구방망이로 후려쳐도 방망이가 튀겨나오는 무충격이 실증됐다。 파스토리니는 이재키트를입고 79년부터 출전, 부상을입고도 뛸수있었다。

돈지스의 바람넣은 재키트는이름을얻어 피츠버그·스틸러스의 테리·브랫쇼、샌프란시스코 49팀의 토니·도셋、휴스턴·오일러스의 얼·캠벨등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돈지스의 제품은 미국및 캐나다풋볼리그팀、5백여 대학팀의 6천여선수가 사용、「부상을 무」로 보고되고있다。

돈지스는바람넣은재키를 부상후에만 입는것보다 부상전에 입으면 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벌집모양의 기포가 있는 나일론 튜브에 바람을 넣은 이재키트는 영구성뿐만 아니라 종래 기어무게가 12파운드인데 비해 3·5파운드밖에 안된다는데 특징이 있다。

◇미국에 새로 등장한 「바람든 재킷트」。이 재킷트를 입으면 갈비뼈가 상한 선수도 미식축구선수로 뛸수있다。

野球배트로 맞아도 아무런 충격없을 정도

돈지스는 이 장비개발로 激技가 軟技로 변하기보다 장비에대한 안전성을 선수들이 실감할때 더욱 과감해진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는 또한 여지껏 일률적으로 입던 장비를 포지션에따라 달리 입도록 장비를 개선했다。쿼터·백은 팔과 어깨를 자유로 움직일수있도록 하고 2백50파운드 공격수의 충격을 받아도 끄떡없도록 했다。

공격수의 장비는 수비진에게 잡히지않도록 딱딱한 끝이없도록했다。

그는헬미트에도공기를넣고 헬미트 끈을관성에의해 줄고 늘어날수있는 특수끈을 개발 부착시켰다。

또한 어깨받이에도 공기를넣은 덥개를씌워 공격이 강할수록 바람이 빠지지않는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운동복에도 바람을 넣어 충격을줄이려고하며 축구화도개조할예정이다。

그는 쿼터·백이 1백야드이상을 던질수있도록팔에달 촉진기를 고안하고있는데 볼을 받을때 정프력을 높이기 위한 발촉진기도 구상중이다。 【金仁奎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0>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 달 ⑤

이제 인사치레는 그쯤해두고 슬슬 장사를 시작해야 겠다는 투로 고여사의 표정이 상업적으로 예리해졌다。

『우선 갖고온 걸 다 내놓아봐요。 쓸만하게 있으려나 몰라』

기옥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엽낭같이 생긴 빌로드 주머니를 꺼내서 고여사에게 건넸다。고여사가 그 안에 든 것을 까만 빌로드를 깐 상자안에 조심스럽게 쏟았다。

수지는 그안에서 쏟아져나온 빛깔도 다양한 매혹적인 돌들을 보는순간 숨이막히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고여사가 그 안에서 얼른 돌하나를 집어올리면서 노여움으로 떨리는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니、이사람이 이게 공짓돌인줄아나?이게 무슨 짓이야 오오、하나님 맙소사…』

그 여자가 집어올린돌은무색투명하고 거기 있는 모든 돌의 갖가지 요염한 빛깔의 정수(精髓)만을 집어삼켰다가 되쏘는것처럼 무지개빛 신비한 광휘(光輝)를 지닌 다이어먼드였다。

『왜 그러세요? 고여사님』

기옥도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다이어먼드하고 딴 돌하고 같이 놓수가 있어요? 무식해도 분수가있지』

『이왕 무식한 김에 한마디 여쭤보겠는데 그게 왜 안된다까요?』

『다이어먼드는 어떤 돌이든지 딴돌은 마구 할퀸답니다。마치 교만한 미녀처럼』

고여사가 연지쪽으로 한번 날카롭게 결눈질을 하면서말했다。

『호오、그 놈도 그럼 손톱이 길겠군요?』

기옥도 덤달아 연지의 잘 다듬은 손톱에 눈길을 주면서 말했다。

『농담이 아녜요。다이어먼드가 뭐 아름답기만해서 보석중의 보석인줄 알우。 이 세상만물중에서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남을 마구 할퀴면서도 제가 남에게 상처를 입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다이어먼드를 딴 보석하고 같이 두지않는건 기본상식이라우。

어째 혜경이가 그것도 몰랐을까요?』

『집에서의 보관상태가 그랬던 건 아니니까 염려마세요。그걸 다 형수님이내놓은 것도 아니구요。어머님께서 모아두셨던거랑 형수님이 주신 거랑 제가 외국 찾다울때 사온 거랑 이것저것 좀 있는 것중에서 고여사님 안목에 맞을만한 것을 골라서 가져온다는게 그만 무심히 한주머니에 넣었던 거니까요』

『역시…』

고여사가 다이어먼드를 제처놓은 딴 보석들을 하나하나 감정하며 감탄을 하기 시작했다。

『역시 어쩜 말씀입니까? 그것들한테 벌써 손톱자국이 났단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역시 내 안목을 아는 혜경이가 보낸거라 정선해서 보냈다고 감탄하는거예요。하나같이 완전하고 깨끗해요。그렇지만 이 많은 것들을 하나같이 다 세팅하려는 것 아니겠죠?』

고여사의 상아처럼 핏기없는 얼굴이 신열이있는것처럼 들떠보였다。정열을 동반하지않은 열기가 몬득 백주의 촉광늘은 전짓불처럼 괴기하게 여겨졌다。

『형수님 말씀이 고여사님이 알아서 신부도 흡족하고 우리집안 체면도 서고 또 요새 웬만큼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대서 구색도 떨어지지않게 해주실거라던데요』

기옥이 웃으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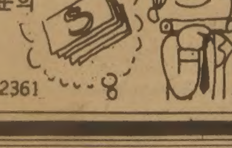
한국일보 詩壇

물새의 꿈

金芝鄕

물새 한 마리
바다를 훔쳐서 거리로 나왔다
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
乙支路、市廳앞、光化門에
해안선을 풀어놓고
연두빛 발톱으로
베어온 바닷살을 꼭 꼭 찍어 놓는다
바닷살이 찍힌 물새 발자국마다
연두빛 바닷물이 찰랑댄다
나뭇잎을 태우고 땅을 태우는
심술궂은 불볕도
물새 발자국에 빠져 바다가 되고
물새 발자국을 밟고가는
이미 절반쯤 불볕에 빼앗긴
사람의 목도
출렁이는 바닷물로 되찾아오고
거리엔 불볕 한 줌도 앉을곳 없어
사람들은 싱그러운 몸을 열고
육지의 바다에 빠져 웃기만 한다
물새 한 마리
끊임없이 꿈 꾼다。

주간女性


광고문의
533·2361

감독자회의
개최 공고

「민중신문사」 주최 제3회 어린이축구대회 감독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팀 감독되시는 분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30일(금) 저녁7시30분
장 소 : 본사 사무실 (802 BLOOR ST. W.)
☎ 537—3473·3474

※ 이날 대진추첨및 경기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전달됨.
※ 아직 등록을 미필한 팀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함.
(선수 출생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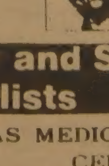
민중신문사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재국 해주는 최근의 신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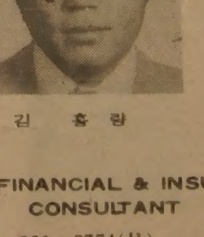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 310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종합보험



김 홍 랑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두死刑囚「여덟生命」살렸다

眼球·콩팥 기증받아 우선 4명에 긴급移植

刑집행 하루전에 쾌히 응낙
家族들"두분 天國환생"기원

사형수 2명이 22일 육신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두사람은 형장에 오르기전 자신들의 신장과 안구를 남겨 「영원한 삶」을 대신 얻었다. 두사람의 신장을 옮겨받은 신부전증환자 4명이 새 — 생명을 얻었고 눈을잃고 있었던 4명이 광명을 되찾았다. 「2명의 주검」이 「8명의 생명」으로 승화된 순간이었다.

◇사형수의 눈으로 안구이식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左부열씨. 수술은 성공적인데 확률은 1천분의1이다.

江南 성모병원 주선…두곳서手術

22일하오 서울中區明洞 성모병원과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않은 사형수 2명이 불우한 환자를 위해 기증한 신장과 안구로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宋永美양(23·서울城北區 貞陵1洞 966의80)과 李상영씨(29), 李창기씨(40)등 3명이었고 다른1명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받았다.

사형수가 콩팥과 눈을기증하기로 결정한것은 江南성모병원의 閔炳奭박사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했다. 閔박사는 이날낮 12시에사형수 2명의 사형이집행된다는 사실을 3일전에 전해듣고 교도소를찾아가 2명의 사형수를 면회,『당신들은 어차피죽을몸, 죽기전에 참회하는뜻으로 신장과 안구를 사회에 기증하라』고설득, 하루전인 21일하오 승낙을받아낸것.

이날 수술을 받은 宋양은 고등학교2학년때부터 신부전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지난80년7월 江南聖母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뒤 만2년간 모두 1백35회에걸쳐 인공신장기를 사용, 생명을 유지해왔다.

이바람에 宋양의 아버지 宋性鎬씨(52·BCCI은행 총무과직원)는 딸의 치료비 마련을위해 집을팔고 전세를 들었다가 최근에는 단칸 사글월세방에서 사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宋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후 싱가포르국제은행서울지점에 근무하다 병세가 악화돼 지난해12월 회사를 퇴직했는데 이소식이 알려지자 BCCI(BANK OF CREDIT COMMERCE INTERNATIONAL)의 한국지점장인 인도인크리샨·무라리씨(44)와 부지점장 李英雨씨(43)등 회사직원들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永美양돕기운동을 벌여 치료비를 보태왔는데 이날 이식수술을 하게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비일체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측에의하면 宋양의수술비는 5~6백만원으로 추산하고있는데 크리샨·무라리 지점장은 7백만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수술은 하오1시부터 시작 5~6시간에 걸쳐실시됐는데 수술결과는 모두양호한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수의 신장기증으로 사경을헤매던 딸을 구하게된어머니 徐命善씨(49)는 이날 병원수술실앞에서 두손을 모아 수술이성공하기를 기도하면서『사형수가 무슨 큰죄를지었는지모르지만 형장의이슬로 사라지면서 남을위해귀중한 신체의일부를 선뜻내놓았으니 지은죄가 사면 받을것』이라며 이들이 천국으로 환생할것을 기원했다.

아버지 宋씨도『신장을 기증한분들의 은혜를 어떻게갚아야할지 모르겠다』며『사형수의 가족을찾아 고마움을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宋양과 함께 수술을 받은 李상영씨도 어릴때부터 신부전증으로 사경을헤매어왔는데 21일 閔박사로부터수술을 받게되었다는 연락을받고 가족들과함께 전남光州에서 택시를대절 밤새상경, 성모병원에 입원수술을 받게된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李씨가족들도 신장을 기증한사형수가 어떤사람인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고마움을잊을수없을것이라며 명복을빌었다.

또이날 성모병원에서는 사형수들이 기증한 안구로 金모씨에게 이식수술을 해주었고 나머지도 성모병원 안구은행에 보관, 눈을잃은 사람들에게 이식할 예정이다.

이날 오른쪽눈을 이식수술받은 左부열씨(48·여·제주濟州郡大靜邑新桃里)는 하오5시30분 성공적으로 수술을끝내고 병실로 돌아와 잃었던 한쪽눈을 되찾게해준분에게 무어라 감사드려야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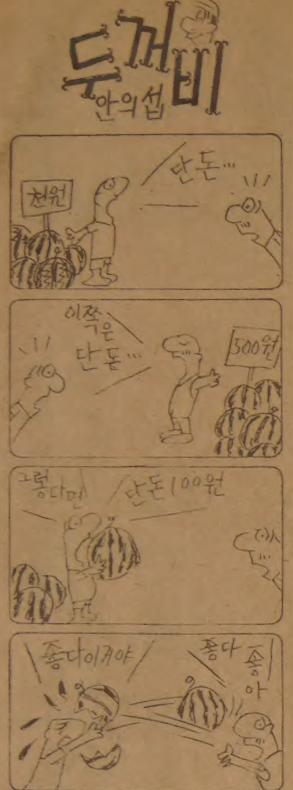
BCCI(국제은행)

BCCI국제은행(지점장 크리샨·무라리·40)은 중동계 국제은행.

산유국 자본을 바탕으로특수한「기빙(giving)」이란제도를 실시해 은행에서 번돈으로 자선사업도하며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경영방침을 갖고있다.

BCCI직원들은 宋씨의 처지를 뒤늦게 알고 그동안 지점장 크리샨·무라리씨(40)를 비롯 직원 모두가 혈액투석비 30~40만원씩을 보조해주었다.

이번에 宋양이 수술을하게된것도 지점장의각별한 관심때문인데 크리샨지점장은 宋양의딱한처지를 부지점장 李英雨씨로부터전해듣고 영국본점에연락, 수술비 7백만원전액을보조해주기로했다.



비타민·한약
비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滅共28 對間諜훈련실시
이달하순 不時에 模擬공비 千여명 投入

대간첩대책본부는 북괴무장간첩과 게릴라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종합훈련이 서울과 경기도일원에서 7월하순 5일동안 불시에 실시된다고 20일 발표했다.

「멸공28훈련」으로 명명된 이훈련은 무장한 모의간첩과 공비1천여명을 육·해상및 공중으로 수도권지역에 침투케하고 이를 군·경·관·민·향토예비군및 민방위대의 긴밀한협조체제로 격멸하는 훈련으로 이기간중 등화관제를 포함한 민방위훈련도 병행될 예정이다.

훈련에 투입되는 간첩과공비들은 북괴군과 간첩의 장비·복장을 갖추고 적전술과 간첩행동을 재현하게되며 수도권지역 주요시설을 폭파하는등 가상상황이 부여되지만 훈련기간중 주민생활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대간첩대책본부관계자는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군·경·관·민 협조체제와 지역방위체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이훈련의 실시에 앞서 대간첩대책본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때는 인근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즉각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야간근무 警備員 會社낚시대 훔쳐

【富川】富川경찰서는 22일 富川市陶唐洞187의1 스포츠및 레저용구제조회사인 반도스포츠공장 경비반장 金재기씨(39·富川市三井洞290)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15일상오1시께 야간경비근무중 회사에서 만든 낚시대41점(싯가 80만원상당)을 훔쳐낸 혐의이다.【富】

농번기에 체육대회 일손뺏긴 農民반발

【鐵原】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읍·면대항 체육대회가열려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강원도鐵原郡金化邑西面·近南面등 인근3개읍면은 지난17일 金化邑내 金化공고운동장에서 축구 배구등 2개종목에걸쳐 읍면공무원 가족등 5백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병충해방제등으로 가뜩이나 바쁜손길을 체육대회에 뺏겨 크게 불편하고있다.

鐵原郡金化邑淸陽里李모씨(40·농업)는『17·18일이틀동안 마을공동방제를하려했으나 체육대회때문에 하지못했다』며『농번기에 체육대회를 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鐵】

情婦남편 殺害 암매장
不倫탄로 두려워

【仁川】경기南楊州경찰서는 22일 정원준씨(37·경기南楊州郡水洞面)를 살인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정씨는 같은마을에 사는 김동립씨(43)가 지난76년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하러간사이 김씨의 부인 한분예씨(36)와 정을 통해오다가 김씨가 지난79년2월 귀국하자 불륜관계가 탄로날것이 두려워 김씨에게 귀국할때 가지고온 녹음기를 팔아주겠다면서 경기加平郡上面林草里 야산으로 유인, 흉기로 배를 찌르고돌로 머리를때려 숨지게한후암매장한 혐의이다.【仁】

店舖내준다고 속여 2백40만원 뜯어내

서울西大門경찰서는 22일 崔명노씨(66·독립유공자유족자활회장·경기南楊州郡渼金邑金谷里314의15)와 鍾權씨(59·동이사·서울西大門區弘濟4洞38의84)등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3월31일 서정임씨(46·여·서울西大門區 弘恩1洞43의13)등 2명에게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게 시내각노점상을철거시킨후팔각정점포를내주기로되어있는데 이점포를양도해주겠다고속여 계약금조로2백40만원을받아 가로챘다는것.

남의旅券으로 換錢 暗달러市場에 팔아
差額가로챈 여행사次長등 구속

치안본부 외사범죄 수사대는 22일 남의여권을 이용, 달러를 환전한뒤 암달러시장에 다시 내다팔아 차액을 가로채온 서울여행사차장 徐廷男씨(33)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돈을받고 회사원을 가장시켜 여권을 발급시켜준 신세기여행사 이사 徐廷男씨(30)를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각각구속하고 전 백운상업사 대표 金在永씨(29)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서울여행사차장 徐씨는 지난 5월부터 여권수속을의뢰한 金庸賢씨(31)등 10명의 여권을 이용, 미화2만6천달러와일화1백36만5천엔을 환전한뒤 이를 남대문시장의 암달러상에 팔아 공정환율의차액60만원을가로챘으며 신세기여행사이사 徐씨는 鄭貞淑씨(29·여)등4명으로부터 4백50만원을받고 백운상업사회사원으로 가장시켜 상용여권을발급토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8일 여행자수표등 미화 2만달러를숨겨 金浦공항을 빠져나가려던 曺圭洙씨(58·파라과이교포)가 세관에걸려 曺씨가 가지고있던 여행자수표를 경찰이 추적한끝에 밝혀냈다.

◇稅務署의「찬바람」서비스 「얼음」과「공평과세」는 시원함에서 맥락이 닿는다. 30도 무더위가 계속되자 부가가치세신고를 받고 있는 세무서접수처에 선풍기만으로는 열기를 억누를수없는듯 얼음을 갖다놓고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2일 하오 서울종로세무서에서)

登山用버너 不良많다
불길치솟고 터져 待避소동

【濟州】濟州시내에서 월부판매되는 등산용 버너에 불량품이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데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이 안되고있다.

濟州시 三徒1동 吳明松씨(43)의 경우 지난20일 회사에서 H회사제품 등산용석유버너를 3만8천원에구입, 집에서 석유를 붓고 가열했더니 갑자기 불길이 1m높이로 치솟고 펑소리를내며뒤어올라 가족들이 대피소동을 벌였다는것.

또 金모씨(41·濟州시龍潭2동)도 구입한 버너를 3번째 사용하기위해 가열하는 순간 불이 치솟으며 못쓰게돼 선금 1만원을 손해보고 물건을 되돌려 줬으며 朴모씨(31·濟州시道南동)도 등산하기전 버너에 석유를 넣으려다 석유주입구가 잘못 돼있어 열리지않아 등산일정을 포기했다는 것이다.【濟】

釜山지하철事故 現場완전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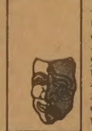
【釜山】부산지하철제3공구 복공판 침하사고로 21일부터 교통이 완전차단되었던 부산釜山鎭區釜田2洞 동부시외버스터미널앞 도로가 사고발생 28시간만에 복구공사가끝나 22일 하오2시15분부터정상적으로 차량통행이 시작됐다.【釜】

「딸의 나라」
美플라멩고댄서 S·O·빌女史
2년전 한국孤兒입양…"인류는 한家族"

미국의 플라멩고댄서 스칼레트·오하라·빌여사(40·사진)는 「딸의나라」한국을찾은 의의를「기쁨」이라 표현했다.

자신과 이름이같은 마거리트·미첼作「바람과함께 사라지다」의여주인공 만큼이나 정열적인 그녀는 그기쁨을「신비」라고까지 말한다.

파란눈에 빨간머리, 헌칠한 키, 풍만한몸매는 영화속의 여주인공을압도한다. 그녀는 이성희(6)란 이름의 한국고아를 입양해 키우고있다. 현재 하와이에살고있는 남편 짐·도널드·빌씨(37) 사이에 아들이하나있는데도 2년전에 성희양을 양녀로 맞아들였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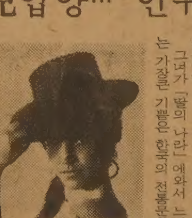


검은눈, 검은머리의 성희양과 파란눈, 빨간머리의 빌여사가갖는 분위기는 대조적이지만 그녀의 딸사랑과 자랑에는 어색함이없다.

『성희를 통해 한국과 인연을맺게된것은 하나의「계시」라고 생각해요. 2년간 같이 살았지만 이젠 떨어져 살수 없을것 같아요』

성희양이 아들도 들어가지 못한 명문사립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거듭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칭찬한다.

빌여사는 9살때부터 플라멩고춤을 배워 59년부터 전문적인 댄서의 길로 들어섰다. 그동안 집시처럼 스페인 라틴아메리카등 플라멩고춤의 본고장을떠돌기도 한 그녀는「전인류가 한가족처럼 다정하게 지내며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털어놓는다.



빌여사가 이번에「딸의 나라」에 온것은 한국바하이 전국정신회의초청에 의해서다. 바하이신도인 그녀는 오는8월5~7일까지 전남新安郡荷衣面에서 열리는 바하이 한국전래60주년기념 서머스쿨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녀가「딸의 나라」에와서 느끼는 가장큰 기쁨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듬어 볼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성희양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해주어 긍지를 느끼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이다.

『성희에게「한국의 얼」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점에서 성희가한국말과 한국의 전통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겠죠』

한국고아를 양녀로 둔 한 외국인 댄서의 외교사령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金周彦기자】

밤낚시 귀가길輪禍 3名死傷

【水原】22일상오8시께 경기水原市坪洞37 앞길을 달리던 서울3나1943호 포니승용차(운전사 安병준·36·서울龍山區漢江路3街40)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변의 전주를 들이받아 운전석옆에 타고있던 정규현씨(35·서울道峰區雙門2洞91)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사고로 뒷좌석에 타고있던 양치근씨(27·서울龍山區漢南洞683)와 운전사安씨등 2명은 중상을입고 水原시내 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모두 중태이다.【水】

"무더위속 단비豫報"
오늘大暑 장마北上

오늘(23일)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대서(大暑). 전국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2일 낮부터 남부지방에 비가오기시작, 24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올 것같다.

중앙기상대는 22일 중국上海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제주남쪽해상에 머물고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해 이날늦게부터 남부지방에 비가오겠으며 23일에는 전국에한차례의 소나기가, 24일에는 전국에걸쳐 많은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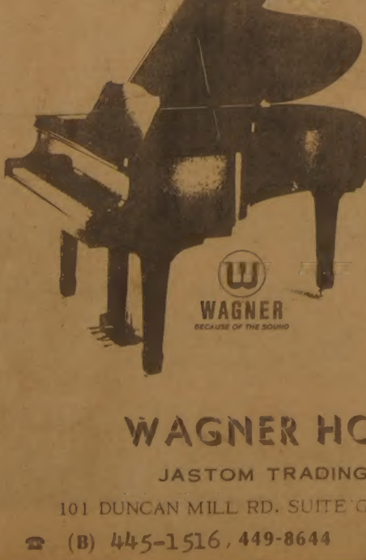
기상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날이계속돼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있으나 비가내리기 시작하면서 더위는 한풀꺾이겠다고 내다봤다.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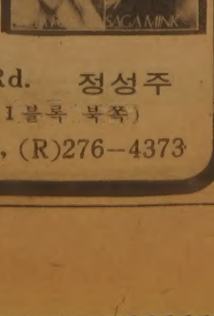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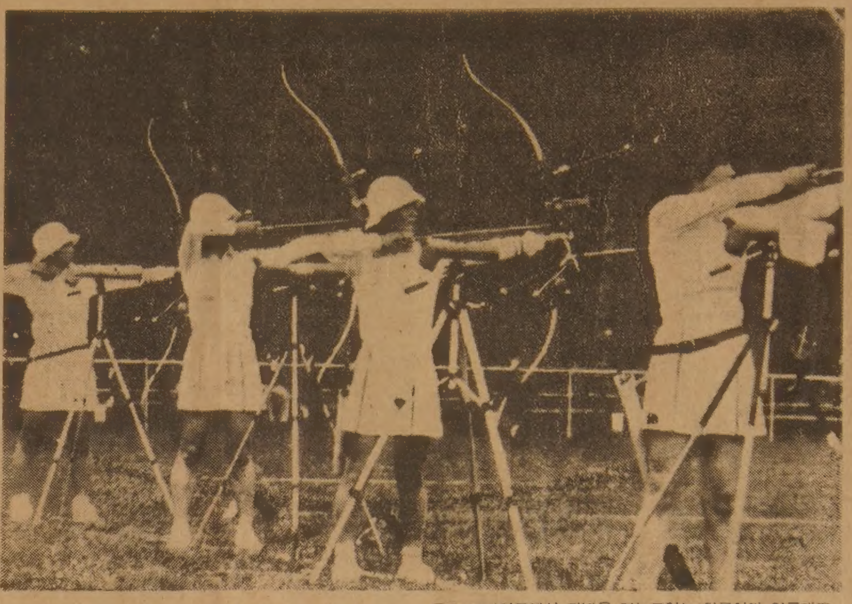
한국洋弓 世界新 8개 추가

亞·大洋洲선수권 폐막 男女모두 綜合우승 마무리

金珍浩 또2개…5冠王

朴英淑·金美英·金永雲도 1개씩

최종일


◇命中…命中…命中…命中…

日本 오비히로에서 과녁을 겨누고있는 한국여자 양궁대표선수들。左로부터 朴英淑, 金珍浩, 梁景順, 金美英。【李鍾南특파원찍음】

女50m 더블의 中共 孟凡愛 우승外는 全종목 석권

【오비히로(日本)=李鍾南특파원】 한국남녀궁도대표선수단이 제1회아시아대양주궁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및 개인종합을 모두석권하고 세계신기록8개를 추가해 총11개의 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또 남자부의 신예 金永雲(전남대)은 국제대회 첫출전에서 전체6개종목 金메달 [illegible]에 올랐고 여자부의 金珍浩는 5관왕을 차지했다。

22일 日本 北海道 오비히로(帶廣)에서 막을내린 이대회 남자단체전에서 한국은 金永雲·李龍浩·嚴諧基의수훈으로 中共 日本을 누르고 예상을 뒤엎는 영광을 안았으며 여자단체전도 강적 中共을 제치고 예상대로정상에 올랐다。

한국은전날 여자70m더블라운드에서 3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최종일 여자30m더블에서 金珍浩가 6백96점으로 종전기록 6백90점(80년蘇聯로사베리제·케토)을 깨뜨려 세계신기록을 보탰다。 또 여자개인종합에서 金珍浩는 총점2천5백80점으로 종전2천5백15점(77년美國루안·라이언)을무려 65점이나돌파했다。 그리고 남자30m 더블에서 金永雲이 7백5점을 올려종전기록 7백1점(76년美國 [illegible] 페이스·다렐)을경신했다。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은 남자단체、남자개인종합에서 남자30m더블에서 金永雲이、여자단체、여자개인종합에서 金珍浩 朴英淑 金美英 3명이、여자30m더블에서 金珍浩가 각각세계신기록을세웠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대회 총11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이중 金珍浩가 혼자 3개를수립했다。 金은 이로써 5개의 세계최고기록을 보유하게됐다。

남자부에서 예상치않은 세계기록까지 수립한 金永雲은 전날 90m、70m 더블 우승에이어 이날 50m더블과 30m더블도 金메달을 따내고 개인종합및 단체전 金메달까지 차지해 6관왕이 됐다。

이종목에서 金珍浩는 1차 싱글라운드(20일)에서 3백2점으로 부진해 총합6백16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최종일전적

▲남자단체=①한국 [illegible](세계신·종전 [illegible]·81년) ②중공 [illegible] ③일본 [illegible] ④호주 [illegible]

▲동개인종합=①金永雲 [illegible](세계신·종전 [illegible]) ②일본 [illegible] ③마이 [illegible]

▲동30m더블=①金永雲 705(세계신·종전701·76년 페이스) ②朴益洙 [illegible] ④嚴諧基 [illegible]

▲동50m=①金永雲 650 ②일본 [illegible] ③李龍浩 [illegible] ⑬李 [illegible]

▲여자단체=①한국 7,563(세계신·종전 [illegible]) ②중공 [illegible] ③일본 [illegible] ④호주 [illegible] ⑤자유 [illegible]

▲동개인종합=①金珍浩 2,580(세계신·종전 2,515·77년 라이언) ②朴英淑 [illegible] ③金美英 [illegible] ④郭梅珍(중공) [illegible]

▲동30m더블=①金珍浩 696(세계신·종전 690·80년 [illegible]) ②朴英淑 [illegible] ④金美英 [illegible]

▲동50m=①孟凡愛(중공) [illegible] ②金美英 624 ③朴英淑 620 ④金珍浩 616

게양할 태극기不足

◆…제1회 아시아·대양주궁도선수권대회 대회본부는 당초 한국선수단에게 태극기 1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팀이 1、2、3위를 휩쓸자 본부측에서는 부랴부랴 3매를 제출해달라고 22일 긴급요청。 이 작은소동은 시상식때 국기를 한국은 1매만 있으면 충분할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또 시상식때 연주할 애국가 카세트도 악대에서 빌려가 뒤늦게 연습에 들어가기도했다。

申東坡감독 選手村입촌

成貞兒기용 檢討로

成貞兒(三千浦女商1년)선수의 여자농구 대표기용문제를 놓고 泰陵선수촌 입촌을 거부했던 申東坡감독이 22일하오 입촌했다。 대한농구협회는 申東坡감독이 입촌하고난후 成貞兒의 대표선수 기용문제를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illegible](태평양화학)선수의 오른쪽무릎 연골파열로 인해 보강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劣勢만회…男性체면 살렸다

世界的弓士로탄생 金永雲

金永雲(19·전남대1년·사진)의 등장으로 한국남자궁도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하루 아침에 용이된것과 같다。

金永雲은 이제까지 국내대회에서 단한번도 1등을 차지한적이 없고 李龍浩(경남대) 朴益洙(전남대) 嚴諧基(삼익악기)에 밀려3、4위권이 고작이었다。

대표선수로 선발된것도 올해 봄이처음이고 해외나들이도 오비히로가 처음。 金永雲의 6관왕 타이틀은 日本의 세계적 스타플레이어들을 제치고 획득한것이어서 어쩌면 金珍浩가 거둔 영예보다 두드러지고 획기적인 쾌거다。

그는 또 국내대회에서 기록상 남자가 여자에게 항상 크게밀렸던 「남성열세」를 처음으로 만회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한 기수。

鄭甲村코치는 그에대해 「[illegible]는 金永雲이 국제대회에서 빛을 볼 선수라고 지목해 왔는데 기대가 들어맞아 기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선수들이 45파운드이하의 활을사용하는데 비해 48파운드의 활을 사용했다。 국내경기장은좁아 활무게가 상관없지만 광활한 [illegible] 점이다。

단면 또 기술적으로는 화살을 [illegible] 유리하다」고 말했다。 1m69, 60kg의 金永雲은 [illegible] 【오비히로=李鍾南특파원】

國內선 항상 3~4位만… 첫海外출전서 6冠王

이번엔 世界新 민겠죠 專用활터가 最大 소원

한국洋弓 영광뒤에는 鄭甲村감독의 땀방울이…

◇鄭甲村감독

體育敎師하다 뒤늦게 入門

여름엔 氷上場 겨울엔 水泳場빌려

책없어 射法도 스스로開發

태릉선수촌의 후진 구석에서 말없이 땀흘렸던 한국 양궁선수들이 또다시 세계를 진동시켰다。 궁기인구및 경기장의 부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국 스포츠사상 처음으로 무더기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양궁이기에 이같은 개가는 더욱 값지고 눈부신것。

金珍浩·朴英淑·金美英등 한국스포츠를빛낸 金메달리스트들의 뒤에는 보이지않게 힘써온 鄭甲村(49)감독이 있다。 양궁보급·기술개발·선수훈련등 어렵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영광을 가져온 鄭甲村감독이야말로한국양궁의아버지。

鄭감독이 양궁에 처음 발을 디딘것은 지난70년。 이전에는 체육교사이자 몇몇 구기종목코치로 활약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양궁으로 뒤늦게 전공을 바꾸면서부터 독보적인 지도자로 부각됐다。 78년 방콕 아시안게임서 [illegible]

[illegible]

【金仁奎기자】

창단2년 浦鐵工 群山商에 逆轉勝

화랑기高校야구

金順源3타점…8強에

【釜山】창단 2년째의 浦鐵工高가 올해 청룡기우승팀인 群山商高를 눌렀다。

浦鐵工高는 22일 釜山구덕경기장서 속행된 제34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4일째 2회전서 6번 金順源의 3타점 2루타등 장단 9안타 4四死球3敵失을 고루 득점에 연결시켜 群山商에 7-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浦鐵은 24일 釜山商-서울大門商승자와 준결승진출권을 다툰다。

慶南高는 大田商을 12-1로 크게 리드한가운데 21일 제한시간에 걸려 일시중지되었다가 이날 계속된 경기서 12-1의 스코어를 지켜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역시 8강에 올랐다。

慶南도 大田에 12-1콜드勝

◇제4일 2회전 전적

경남고	213	60		—	12
대전고	000	10		—	1

〈5회 콜드게임〉

군산상	102	000	000	—	3
포철공	010	030	03×	—	7

▲홈런=白仁浩·吳錫煥(이상 3회·군산상)

마산상	000	100	000	—	1
신일고	000	000	20×	—	2

全州·東山、8強선착

대봉기高校야구 각각 奬忠·冲岩 눌러

【大邱=鄭東吉기자】 全州高와 東山高가 제4회 대봉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의 8강에 먼저 올랐다。

全州高는 22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열린대회 4일째 2회전서 李熙成·辛完根의 계투로奬忠高타봉을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3번柳川秀의 2타점 적시타등장단 13안타로 8대1、8회콜드게임승을 거뒀다。

또 東山高는 에이스 崔容男이 투타에서 대활약、冲岩高를 7-0 7회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런데 이번대회에서는 1·2회전 10게임중 8게임이 콜드게임으로 끝나팀간의뚜렷한수준차를보여주고있다。

◇제4일 2회전 전적

장충고	000	100	0	—	1
전주고	012	112	01	—	8

〈8회 콜드게임〉

충암고	000	000	0	—	0
동산고	030	210	1	—	7

〈7회콜드게임〉 ▲홈런=崔容男(2회·동산고)

◇제3일 1회전전적

배명고	003	001	400	—	8
성광고	100	101	120	—	6
세광고	106	012	011	—	12
진흥고	010	004	010	—	6

▲홈런=許尙喆(2회·진흥고)

세계大學유도 選手團 26일결단식

대한유도회는 오는8월3일부터7일까지 핀란드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생유도선수권대회 출전 대표선수 결단식을 26일 상오10시30분 漢陽주택 사무실서 갖기로 했다。

로렌은 出演계약어겨 말썽

脫稅혐의 服役마쳐

◇소피아·로렌

○…아카데미상수상자이며 최근 탈세혐의로 복역했던 배우 소피아·로렌(47)이 「티에타·다그레스테」에출연키로 했던 당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촬영에 응하지 않았다고 알렉스·시네마토그라피카社가 발표했다。

알렉스社는 로렌이 『일방적으로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로마의 치네치타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밝히고 회사변호사에게 『적법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지시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로렌의 변호사인 조반나·카우씨는 『알렉스社가 출연료도 지불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여러번 촬영을 미뤄놓고 이제와서 로렌이 계약을 어겼다는 말로 체면을 세우려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로렌은 지난5월19일 2년만에 귀국했으나 탈세혐의로 체포되어 30일형기중 17일간 복역하고 석방됐으며 현재 로마에 있는 어머니의 아파트에 머물고있다。

프로호노브 美映畵에 데뷔

「草原의집」에 등장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됐던 독일영화「폭전U보트」에서 함장역을 맡았던 유르겐·프로호노브가 처음으로 미국영화에 출연한다。 그는 TV시리즈 「초원의집」의 제작자 마이클·랜든이 만드는 「귀향」에 라오스 비밀경찰 우두머리역을맡고있다。

이 영화는 [illegible]신문기자 존·에버링햄이 공산치하의라오스에서 라오스인 연인케오와 함께 메콩강밑을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탈출한다는 실화에 바탕을 두었다。

原作料 百萬弗퇴짜

○…앤터니·퀸이 콜럼비아작가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의 작품 「고독의 1백년」의 판권을 1백만달러에 사 영화로 만들려고 제의했다가 작자로부터 보기좋게 딱지를 맞았다。

마르케스는 딱지를놓은이유를 『좋은 소설을 원안으로 만든 영화치고 좋은 내용의 영화가 만들어진예를 본적이 없다』고 딱잘라 거절했다고 한다。【LA=朴興津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신체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부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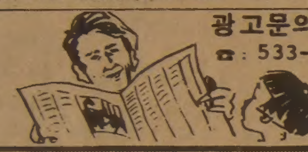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석전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성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추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잔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
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
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
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페인트

페인트 하실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
게 맡겨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 Variety Store에서 하루5시간 Help 해주실분(유경험자 원함), 또는 가게를 직접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전화 : 967-4461 (Mr. 용)

Full Time dishwasher구함. (주6일 월요일은 쉼) 일하는 시간: 11:00a,m-2:30p,m, 5:00p,m-11:00p,m, Mike 전화 : 487-3508

유경험자 Manager 구함
오후8시에서 11시사이에 449-6098로 연락바람.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영어하실 수 있는 분 환영. 침식제공 월 700불
전화 : 1-705-748-9722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가수 박소영의 거처를 아시는 분은 한국일보 광고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화 : 533-2361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영어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쓰기, 읽기, 어휘등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지도해드리며 시간당 $10로서 하루 Course는 5시간에 $50되겠읍니다.
성심 성의껏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드리는 것을 약속합니다.
전화 : 225-76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Plaza에 있는 그로서리가게, 건강상 급매(일요일문닫음)
주매상 : $4,000이상, 리스: 4년4개월+5년 옵션
렌트 : $840, 1196 Kennedy Rd,(직접 내방바람)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 Ne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Bakery for Sale
직접 빵만드는 장비 포함.
소매, 도매 모두 취급(소매는 잘 자리잡혀진 주거지역에 위치, 공장에서 10분거리에 있음)
주매상 : $6,000 넓이 : 4,731 sq,ft,
아스킹 : $143,000
Anna Cheng 전화 : 421-2214 / 465-1360
Newbliss R. E. Corp.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Variety Store (Rogers & Oakwood)
주매상 : $3,500
Patrick Ho, Real Estate, Jack 593-8967

Convience Store for Sale (St,Catherine지역)
년매상('81): $240,000, 리스 : 5년+5년
Rent : $900, 아스킹 : $26,000, 전화 : 266-5895(Mr, Kim)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잘 설비된 봉제공장을 매매코져함.
이 시간에 직접내방 바람. (월~금: 4:00 p,m~6:00 p,m)
292 Parliament St, (at Dundas)

Grocery & Variety (새로 Open한 Store) 전화 : 431-4474
리스 : 5년+5년 Option (Lawrence & McCowan)
619 McCowan Rd,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 바람)

- 수퍼마켓 매매.
- 빌딩도 함께 팔 수 있음. (로렌스 × 빅토리아 파크)
  전화 : 759-9331 Mr, 아트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1) 개인 Donut Shop (좋은 지역임)
주매상: $7,000이상 good mortgage
Rent: $2,200 아스킹: $290,000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Variety & Gift, 8년 리스, 아스킹: $34,000
6개의 Pin Ball Machine도 Asking Price에 포함됨.
2) Variety & Gift(Jane & Lawrence) 아스킹 : $19,900
3)2 Apt 포함한 Grocery Store,
at Queen St, 아스킹 : $145,000
4) Store와 Apt,(at Super Location) 아스킹 : $250,000
5) Wasaga Beach에 있는 8개의 Cottage
아스킹 : $189,000
For More Information Call Doris Burda,
전화 : 763-5555
R, Cholkan & Co, Ltd, Realtor,

Fast Food Take-Out, 새로지은 Mall
(미시사가 지역) 주매상 : $1,800, 아스킹 : $50,000
전화 : Luba, 624-4247, 826-5942

Glass Shelf, 카운터등 (Gift Shop용)
전화 : 425-9839

Store급매 (자세한 문의는 690-6572), 환경좋은 지역의 Shopping가에 위치한 시간짧고 수익성 좋은 Plant·파일·그로서리 가게를 급매코져함. 주매상 : $12,500이상

☎ : 533-2361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드서×로얄욕) 전화: 255-471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비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는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